

2024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기 회원총회

일시: 2024년 2월 3일 (토)

장소: 강북노동자복지관 201호 시청각실

행성인 비전, 가치, 미션

행성인 20주년에 맞추어 단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 활동 내용 및 방식을 표현하는 비전, 가치, 미션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성인의 비전과 가치, 미션은 지난 20년간 행성인의 활동 방향을 담아내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행성인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행성인의 비전과 가치, 미션은 2017년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비전

‘행동하는 성소수자의 저항과 연대로 만드는 변화’

가치

저항하고 행동하는 행성인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성인

평등한 공동체를 일구는 행성인

미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저항과 연대를 일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문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누구나 행성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저항하고 투쟁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를 기억합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들리고 보일 때, 일상의 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가정, 학교, 직장을 비롯해 삶의 공간 곳곳에서 겪는 배제와 모욕,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평등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만들기 위한 시작!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부딪히는 곳이기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져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나, 소수자 비하적인 욕설을 듣게 된다거나,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로 훈계를 듣게 된다거나,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한다거나, 원치않는 스킨십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행성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행성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평등한 행성인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부착해놓고,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 시작 전에는 이 약속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으나,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성인을 찾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토론을 통해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임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청소년,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임 공간에 신경을 씁시다)
- 처음 보는 사이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말을 놓을지 여부는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합니다.
- 내가 누구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합니다)
- OO다워야 하는 건 이제 그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정체성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괜찮은지 묻고, 원치 않은 공개를 피합니다.
- 소수자(여성/장애/질병/나이/인종)비하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 모임에 새로 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어울립니다.
-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때 그때 표현하고 신뢰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해결합니다. 이를 위해 불편한 것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듭니다.

정기 회원총회 식순

2:00 - 2:05	故 임보라 목사님 추모의 시간
2:05 - 2:20	2023년 활동 보고
2:20 - 2:40	2024년 임원 인준의 건
2:40 - 3:10	공익단체 등록에 관한 건, 정관 개정 의결의 건
3:10 - 3:50	2024년 활동 목표 및 계획 의결의 건
3:50 - 4:00	쉬는 시간
4:00 - 4:20	2024년 예산 의결의 건
4:20 - 4:50	정부 및 기업 후원 원칙 마련 토론의 건
4:50 - 5:00	기타 안건
5:00	폐회 선언

자료 순서

보고 안건

1. 2023년 활동 총평 및 중점 활동 보고	P. 09
1. 1. 2023년 활동 총평	P. 10
1. 2. 2023년 중점 활동 보고	P. 14
2. 2023년 결산 및 회계 감사 보고	P. 27
2. 1. 2023년 결산	P. 28
2. 2. 2023년 회계 감사 보고서	P. 37
3. 2023년 연대활동 보고 및 평가	P. 39
4. 2023년 소모임 활동 및 2024년 소모임 현황	P. 53
4. 1. 2023년 소모임 활동	P. 54
4. 2. 2024년 소모임 등록 현황 보고	P. 58

의결 안건

1. 2024년 임원 인준의 건	P. 61
2. 공익단체 등록에 관한 건	P. 71
3. 정관 개정 의결의 건	P. 75
4. 2024년 활동 목표 및 계획 의결의 건	P. 77
4. 1. 2024년 활동 목표	P. 78
4. 2. 2024년 주요 활동 계획	P. 83
4. 3. 단체기구 / 활동팀	P. 88
5. 2024년 예산 의결의 건	P. 119

기타 안건

.....	P. 129
정부 및 기업 후원 원칙 마련 토론의 건	P. 130

부록 - 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P. 133
------------------------------------	-------	--------

보고 안건 1

2023년 활동 총평 및 중점 활동 보고

보고 1. 1. 2023년 활동 총평

“활동팀, 회원 역량 조직의 해”를 보내며.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영화 ‘겨울왕국 2’의 대사였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해” 이 말을 잘 기억하자고 운영위원들과 나누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사회운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던 바, 조급해하지 말고 무력감에 흔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예상했음에도 그 이상으로 사회운동은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간호법, 양곡법, 노조법2,3조 개정, 방송3법 개정까지 무려 4개의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밀려 폐기되는 사태에서 보듯 소위 민주·진보·인권 진영의 이슈들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의 부정, 노동탄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폭압 등 전 영역에서 퇴보의 역사를 다시 쓰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도서에 대한 공격을 통해 페미니즘 백래시와 반동성애를 등에 업은 보수세력들이 지역에서 혐오의 세를 규합하며 지역 내 인권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2심 승소나 성소수자 커플의 출산이 이슈가 되는 등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난 한해였기도 합니다. 더불어 혼인평등과 관련하여 가족구성3법이 발의되고, 동성혼 법제화 서명을 받는 대중캠페인이 시작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여러 사회운동 단위들의 혼인평등 운동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며,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성소수자 운동이 그동안 쌓아온 연대의 역량이 만들어 낸 성과임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균형법, 전파매개금지조항 합헌 판결을 지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까지 보수화된 정치의 흐름은 성소수자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구나 진보정치의 쇠퇴와 보수양당 구조의 공고한 벽은 변화에 대한 기대조차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느리더라도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총선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지만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위기감과 무력감 속에서 사회 운동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과 함께 다른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전방위적인 탄압은 그동안 접점이 없던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제전환 운동이라는 급진적인 흐름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제도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운동은 다른 영역들과는 분명 다른 지형에 놓여 있다 하겠으나, 성소수자의 삶은 사회운동의 의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잘 살피면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행성인은 이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새로운 성산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25주년에 이어, 2년 연속 규모가 큰 후원을 조직했고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지나며 움츠러든 활동을 다시 잘 펼쳐낸 것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어 뿌듯함도 큼니다. 그러나 이사에 매진하느라 회원 조직이 미진했음은 아쉬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집회 참여와 같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연대 활동이 줄어든 것은 많은 고민을 남깁니다. 연대는 행성인의 중요한 가치이면서 집회를 통해 행성인을 알려오고 이를 통해 회원들과 공감하고 관점을 알리며 신규 회원의 유입을 이끌어내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대활동에 상임활동가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쏟아지면서 연대의 의미와 효용이 회원들 안에서 그만큼 줄어든 영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염두하며 24년에는 회원들과 연대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장치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자리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23년의 행성인 이슈에 이사와 함께 서울퀴어퍼레이드 ‘퀴어한 몸들의 수상한 행진’과 행성인 아카데미를 꼽아주었습니다. 민주노총 성소수자 조합원 모임과 함께 한 부스 캠페인과 노동장애인야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트랜스피플과 펼쳐낸 거리 행진은 소수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낸, 행성인만이 할 수 있고 행성인이라서 가능했던 활동이었습니다. 행성인 아카데미는 회원들이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하며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열었습니다. 아카데미를 계기로 새롭게 등장한 활동회원들은 행성인의 주요한 활동에 역할을 맡거나 자발적인 활동들을 모색하며 행성인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회원들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는 계기들과 회원들의 고민과 욕구들이 단체 활동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음세대재단 기금을 통해 발간한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 일터 가이드북과 노동권을 주제로 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은 큰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를 잘 활용하여 교육, 인터뷰, 간담회 등 성소수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논의들을 잘 기록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역 퀴어문화축제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활동의 비중이 높지 않은 행성인이 지역 회원들을 만나는 창구이면서 지역의 성소수자 운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담기에는 참여도에 비해 기획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남기며 앞으로는 새로운 회원들을 만나는 장으로서 지역퀴어문화축제 참여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편, 행성인의 내부 과제가 도출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인 25주년을 기점으로 상임활동가 4인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규모에 맞는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주요한 활동들을 상임활동가들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도 커졌습니다. 더불어 2년 연속 큰 후원사업을 하였지만 이는 일시모금으로서 4인의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재정 위기에 봉착해 있기도 합니다. 이는 그동안 행성인이 연대해온 인권운동과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해온 후원의 방향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올해의 평가와 행성인에 남은 과제들은 분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성인의 목표는 ‘활동팀, 회원 역량 조직의 해’ 였습니다. 많은 부분 노력을 기울였고 성과도 남겼으나, 평가와 남은 과제들을 볼 때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조직 강화는 언제나 행성인의 주요한 목표였지만, 그 방향은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올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2024년, 행성인은 회원단체로서 조직 역량 강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욕구들이 활동으로 연결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는 한편, 단체 홍보를 강화하여 행성인의 활동을 널리 알려냄으로써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후원조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은 단체 안팎으로 과제가 많은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이후를 누구도 쉽게 전망하지 못하면서도 별다른 기대를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운동은 계속됩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주요 의제와 더불어 혼인평등 운동은 더욱 열기를 뿜 것이고 기후위기, 반전, 노동, 페미니즘과 같은 다양한 사회 의제들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행성인은 내부를 단단히 살피면서도 이러한 연대활동에도 이전과 같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페미니즘 백래시가 반동성애, 트랜스 혐오와 맞물린 상황을 고려할 때 페미니즘이 성소수자 대중들에게 연결된 의제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라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해하지 않고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씩 우리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성인은 성소수자인권단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연초 성소수자들의 든든한 동료였던 고 임보라 목사님의 부고는 아프게 남았습니다. 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곁을 떠난, 그러나 분명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들을 잊지 않으며 각자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행성인으로 모여 같이 만들어온 활동과 시간들, 그 역동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또 계속 해 나아갈 것이니까요. 2024년에도 행성인과 함께 투쟁!

◆ 올해의 활동 총평은 운영위원들과 함께 나눈 평가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 한 명 한 명의 노고가 한 해의 평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1. 2. 2023년 중점 활동 보고

1) 행성인 이사가자

(1) 사업 개요

① 목적

- 사람의 드나듦이 보이는 공간, 회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 쾌적한 공간으로!
- 다양한 활동이 움트는 공간으로!

② 목표

a. 모금 목표

- 기존안: 2,500만원
- 수정안: 50*50후원인 2,500만원, 소셜펀치 900만원

b. 공간 마련 목표

- 금액적 조건: 보증금 2~3천만원, 월세 200~250만원(관리비 포함)
- 공간적 조건

-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공간
- 성별 구분없이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화장실이 있는 공간
- 비가 새지 않는 공간
- 늦게까지 모여 내가 나로서 눈치보지 않고 떠들 수 있는 공간
- 30여명 이상이 모일 수 있고, 연대단체의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30평 이상의 공간.
- 사무국과 회원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2) 사업 경과

■ 사업 기간: 2023년 5월 ~ 11월

no.	세부사업명	사업 내용	2023년							
			5	6	7	8	9	10	11	
1	[5월 회원모임] 무지개텃밭 이사 프로젝트 - 행성인 이사 가자!	회원들에게 행성인 이사 계획을 공유하고 행성인이 바라는, 회원들이 바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나눔								
2	[행성인 이사 기금 마련] 무지개텃밭 반딧불이가 되어주세요	행성인 이사 기금 마련을 위한 소셜펀치 오픈 및 50*50 후원인 모집								
3	부동산 물색 및 계약	발품 팔아 부동산 물색하여 9월 15일 계약 성사								
4	[9월 회원모임] 행성인 이사 간다!	대흥동 무지개텃밭 추억 나눔, 새로운 무지개텃밭 공간 소개								
5	이사	10월 17일 성산동으로 이사								
6	행성인 집들이	11월 10일 집들이 진행								

(3) 사업 결과

① 새로운 공간

- 주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20-5, 1층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5만원(관리비 포함)

② 수입

항목	내역	금액
50*50 후원인	48명	28,855,000원
소셜펀치	147명	8,815,370원
집들이	5명	250,000원
합계 (200명)		37,920,370원

※ 추가로 글로벌기빙 통해 100만원 후원 건 있음.

③ 지출

항목	내역	금액
보증금 증가분	2천만원 -> 3천만원	10,000,000원
월세	이사 준비(인테리어 등) 기간 중복 지출	4,250,000원
이사	중개수수료, 이삿짐센터, 청소/폐기물처리, 인테리어, 식사지원	15,438,220원
가구/집기	구매 및 설치 (책장, 책상, 의자, 파티션, 커튼, 에어컨, 복합기, 후원자 판넬 등)	7,155,669원
집들이	떡, 다과, 케이크	460,500원
후원자 선물	50*50 후원인 선물	456,000원
합계		37,760,389원

(4) 평가

-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모금 목표를 달성하였고, 수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출이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이사할 수 있었음.
- 기존에 존재하던 소회의실의 부재와 다소 넓지 않은 교육장의 규모는 아쉬운 지점으로 남음.
- 역에서의 도보 거리는 멀지만, 어디에서 오든 교통편이 용이함.
- 새로운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
- 공간적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공간으로 이사할 수 있었음. (내부에서는 장애접근성이 완벽히 보장되지 못하지만 1층이라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근은 용이, 독립된 화장실 공간 존재, 소음 차단을 위한 방음 공사 진행, 회원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별도로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공간 확보, 상임활동가들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등)

2) 행성인 아카데미

(1) 사업 배경

- 25주년 전후로 행성인에 새로운 회원들이 많아지고, 코로나 이후 온택트 활동이 재개되면서 활동조직과 회원 역량강화의 필요 절감. 활동 이슈와 의제를 두루 공부하고 이야기나눌 수 있는 <행성인 아카데미>를 진행.
-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와 지금 행성인이 집중하는 트랜스젠더, HIV/AIDS, 균형법상 추행죄, 성소수자 노동권과 혼인평등 이슈를 참여형 교육과 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2) 프로그램 구성

[1주차 - 3/11]

오프닝: 팀 역할 탐색

- 프로그램: 벨빈의 팀 역할 검사
- 진행: 오소리 (행성인 상임활동가)

성소수자 인권운동 격동의 30년

- 프로그램: 성소수자 인권운동사 연표그리기, 간단한 정리 강의
- 진행 및 강사: 웅 (행성인 상임활동가)

[2주차 - 3/18]

성별이분법을 넘어, 트랜스젠더 이슈가 던지는 질문들

- 강사: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주차 - 3/25]

살롱 드 에이즈: 속성 편

- 프로그램: 포토보이스, O/X퀴즈(U=U, 프렘, 19조에 대한 이해 등), 2023년 에이즈 운동의 화두를 설명하는 강의
- 진행 및 강사: 웅 (행성인 상임활동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에도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한다고?: 균형법 제92조의6 뜯어보기

- 프로그램: 10문10답 강의, 판결문 빨간펜
- 진행 및 강사: 오소리 (행성인 상임활동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4주차 - 4/1]

일터에서 이런 일 나만 겪어?

- 프로그램 : 일터에서의 차별에 개입하는 방법, 성소수자 노동권 주제 토론
- 진행 및 강사: 지오 (행성인 상임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호림 (행성인 상임활동가)

[5주차 - 4/8]

함께 만드는 혼인 평등

- 프로그램 : 혼인평등 운동 강의, 동성혼 말하기 프로그램
- 진행 및 강사: 호림 (행성인 상임활동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6주차 - 4/15]

상상을 실천으로: 캠페인의 모든 것 알아보기

- 프로그램 : 성공하는 캠페인의 7단계 과정 강의, 캠페인 의제 찾기, 목적과 목표의 이해 및 SMART한 목표 설계
- 진행 및 강사: 행성인 교육기획국 (병권, 사과, 오소리, 정우)

[7주차 - 4/22~23]

활동이 무르익는 1박 2일

- 프로그램

- 2023 아이다호, 자긍심의 달 캠페인 기획해보기- 수강생들의 니즈로 만드는 프로그램: 인권활동가 토크쇼, 평등한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 등 수강생들이 니즈에 맞춰 설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골든벨 퀴즈

- 아카데미 수료 파티

- 5강 이상 수강 시 행성인 아카데미 수료증 지급.

- 22명의 행성인 회원이 신청.

- 4개 조로 나눠 프로그램 진행하고 캠페인을 기획 및 수행

- 조별 캠페인 중에서는 2개 사업 진행 ‘퀴어가 학교다닌 썰폰다(퀴학썰)’,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고 논바이너리’

- 마무리 모임 11월 17일 <행성인 아카데미 다시 모여랏! 또 연결될 지도?> 진행

(3) 평가

- 아카데미를 통해 단체 내 활동회원들의 멤버십 강화. 서로 간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캠페인 기획으로 연결하면서 배움과 활동의 효능을 체득할 수 있었음.

- 각 조마다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활동경험이 비교적 많은 활동회원이 이끔이 역할을 함.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캠페인의 기획과 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

- 교육과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기간동안 쿼어 퍼레이드나 기타 집회행사 등 외부 활동들이 나란히 있었음. 아카데미에 갇히지 않고 참여를 넓히면서 활동 조직의 효과도 얻을 수 있었음.
- 기존 사무국 및 운영위원, 팀장 중심의 활동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회원들이 함께 캠페인을 기획하는 경험은 성과와 별개로 그 자체 의의가 있음. 모든 조가 캠페인을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기획하고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 두 개의 캠페인은 회원모임과 웹진, 아이다호 집회 등 행성인 안팎의 회원활동과 연동해서 진행할 수 있었음.
- 다른 하나의 캠페인은 여러 사정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했지만, 기획을 세우고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었음.
- 다만 사전에 캠페인 기획에 대한 프로그램 동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음. 이제 교육과 캠페인이 분리되는 느낌도 들었는데, 향후 캠페인 기획과 실행을 염두에 둔 교육프로그램 기획이 보완되면 좋겠음.
- 호응이 높은 만큼 캠페인 프로그램을 연간 활동으로 기획하고 지속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조직과 기획의 목적 뿐 아니라, 회원이 함께 만드는 활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아카데미의 시너지를 위해 활동팀의 활동들과도 발을 맞추면 좋겠음. 가령 기본 교육을 위주로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한다면, 활동팀에서는 심화 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구상할 수 있음. (가령 HIV/AIDS인권팀의 경우 아카데미에서 ‘살롱 드 에이즈-속성 편’과 별도로 팀 자체에서 ‘살롱 드 에이즈’ 심화편을 상반기에 기획 및 진행하면서 감염인의 노동권과 성적 권리를 이야기 나눔)

3) 노동권 중점 활동

(1) 사업 개요

성소수자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성소수자와 평등하게 관계 맺기’ 프로젝트 - 다음세대재단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① 목적

- 성소수자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는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적절한 교육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향후 활용도가 높은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
- 성소수자 노동권을 주제로 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향후 성소수자 노동권과 관련한 활동과 캠페인, 인권교육 홍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② 사업 기간

- 2022. 12. 1 - 2023. 11. 30

활동	월별 일정											
	22/12	23/1	2	3	4	5	6	7	8	9	10	11
사업 기획												
- 자료 검토 및 조사												
- 사업추진기획 확정												
가이드북 발간												
- 제작 기획단 모집												
- 원고 작성 및 디자인												
- 홍보 및 배포												
홈페이지 제작												
- 업체 섭외 및 기획												
- 구성 및 피드백												
- 홈페이지 오픈 및 홍보												
자문회의												

중간 점검												
평가 및 마무리												

(2) 사업 경과

① 사업 결과

a.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 - 성소수자의 직장 동료를 위한 일터 가이드북』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행성인 회원을 포함한 기획팀을 구성하여 가이드북 제작 작업을 진행, 성소수자의 직장 경험이 가이드북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실제 가이드북의 타겟인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O/X 퀴즈와 만화 등의 요소를 활용하였으며, 성소수자 동료와 평등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에티켓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가이드북 배포
 - 개인 신청자 대상 배포
 -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및 발송
 - 외부 행사 부스 참여자 대상 현장 배포: 서울퀴어문화축제, 인천퀴어문화축제, 923기후정의행진, 경남퀴어문화축제
 - 러쉬 코리아 캠페인 (7월 7일 - 23일)
 - 러쉬코리아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가이드북 비치 및 가이드북 홍보 캠페인 진행

- 기업/노동조합/단체/기관 대상 배포
 - 노동조합: 민주노총 산별 및 지역본부, 지회 등 551곳
 -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259곳
 - 지역 노동권익센터 및 청년센터: 208곳
 - 기업: 50곳 (성소수자, 여성친화적으로 알려진 기업 대상 배포)
- 가이드북 연계 인권교육
 - 가이드북 발간이 지연되어 프라이드먼스 시기에 맞춘 가이드북 연계 인권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
 - 11월 28일 ‘인권교육센터 들’ 가이드북 연계 인권교육 진행

b. “일터에 무지개를” 성소수자 노동권 홈페이지 제작

- 가이드북 내용 소개, 성소수자 노동권 관련 발간자료와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등 단체의 노동권 관련 활동 결과물 아카이빙, 인권교육 신청 등을 주요 구성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개설함.
- 홈페이지 개설 이후 SNS 광고 등을 통해 홈페이지 유료 홍보를 진행

② 평가

a.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된 성소수자 관련 적절한 교육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활용도 높은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O/X 퀴즈와 만화 등의 요소의 활용과 가이드북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배포 결과: 사업 초기 목표로 설정한 배포대상 보다 넓게 배포 작업을 진행함. 러쉬코리아 캠페인과 923 기후정의행진 등을 통해 가이드북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배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지역 노동권익센터와 청년센터 등 기존에 접점이 높지 않았던 기관을 대상으로도 배포 작업을 진행함. 배포 이후 후속 작업으로 염두해 두었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인권교육 센터 들’의 제안으로 1회 교육 진행).

b. 홈페이지 제작

- 가이드북과 연동된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이 좋았음. 향후 지속적인 활용을 염두에 두고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성소수자 인권교육 신청하기> 메뉴를 구성하여 향후 활용성을 높임. 향후 콘텐츠 업로드 작업 등이 수월하지 않은 형식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 홈페이지 오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활용도 자체를 아직 평가하기는 어려움. SNS를 통한 홈페이지 유료 홍보를 통해 약 23.3만명에게 도달하여 2,000여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음.

③ 향후 계획

- 2024년 상반기, 가이드북을 활용한 기업 및 노동조합 대상의 인권교육을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며, 가이드북의 내용(성소수자 동료와 함께 평등한 일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에티켓)을 바탕으로 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홈페이지 활용과 관련하여 2023년 성소수자 노동권팀에서 진행한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업로드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외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보고 안건 2

2023년 결산 및 감사 보고

보고 2. 1. 2023년 결산

1) CMS 회원 및 후원금

(1) 월별 증감율

월	증가(명)	감소(명)	순증가(명)	CMS 입금액(원)	출금율(%)
1	10	7	3	8,978,777	86.16
2	6	10	-4	8,879,600	84.41
3	15	7	8	8,963,007	85.03
4	1	13	-12	8,912,767	85.36
5	26	8	18	9,076,247	88.60
6	7	6	1	9,307,737	88.20
7	8	8	0	9,023,920	86.75
8	9	4	5	9,327,254	86.58
9	9	9	0	9,386,967	88.27
10	1	6	-5	9,296,347	87.58
11	4	8	-4	9,021,630	86.09
12	6	5	1	9,148,347	85.86
합계	102	91	11	109,322,600	
월 평균	8.5	7.6	0.9	9,110,217	86.57

* 증가: 신규 가입, 일시정지 해제(후원 재개), 재가입

* 감소: 일시정지, 해지(탈퇴) // 장기미납자 임의 해지 건은 반영하지 않음.

* 순증가: 증가 - 감소

(2) 평가

① CMS 인원

- 감소 인원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전년도 감소 합계 92명)

- 증가 인원은 월별로 편차를 보이며, 월 평균 1명 꼴로 순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CMS 누적 인원은 770명(24.01.17)으로 작년(23.01)과 비교하여 6명 감소함. (순증가수는 양수이지만, 장기 미납자 임의 해지 처리 건으로 인해 CMS 누적 인원은 감소)

② CMS 금액

- 23년 1월 CMS 입금액과 23년 12월 CMS 입금액 차이는 169,570원으로 CMS 증가 인원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래 수입 결산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치에는 크게 미달하였음. (23년 CMS 입금액 합계 목표 117,250,000원 / 23년 12월 CMS 입금액 목표 1,054만원)

- CMS 인원 순증가수와 CMS 입금액이 정확히 비례하지 않는 것은 인원 당 약정액의 차이와 월별 출금율이 다르기 때문임.

- 인당 평균 CMS 약정액은 11,831원

- 출금율이 CMS 입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4년에는 출금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수입 결산

관	항	목	2023 예산	집행률(%)	2023 결산
후원수입	정기회비후원금	CMS	117,250,000	93	109,322,600
		입금	500,000	102	510,000
	후원금	비정기후원	6,000,000	220	13,205,528
		특별후원	0		402,660
	후원수입 소계			123,750,000	100
사업수입	일반사업	판매	4,000,000	135	5,394,539
		강연	500,000	249	1,244,800
		대관, 인세	200,000	243	485,500
		참가비	1,500,000	114	1,710,000

	특별사업	기금사업	30,000,000	99	29,650,000
		재정사업	25,000,000	152	37,920,370
		사업수입 합계	61,200,000	125	76,405,209
기타 수입	이자수입	이자	10,000	223	22,263
	기타 수입	기타	0		2,240
		임대료	1,200,000	88	1,050,000
			기타수입 합계	1,210,000	89
환급			200,000	1259	2,518,400
		수입 합계	186,360,000	109	203,438,900
		적립금	11,000,000	100	11,004,602
		이월금	25,131,180	100	25,131,180
		총 합 계	222,491,180	108	239,574,682

3) 수입 설명

(1) 후원수입

- CMS 수입은 목표치에 비해 크게 미달하였으나, 큰 규모의 비정기후원이 많아 후원수입 소계는 목표치를 거의 달성함.
- 특별후원은 ‘트랜스피플’에서 트랜스 관련 활동으로 사용해달라며 후원한 목적성 후원금임.

(2) 사업수입

- 연중으로 열린 모든 지역 쿼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고 참여함으로써 판매 수익을 초과 달성함.
- 외부 강연 요청과 대관 신청 건이 예상보다 많아 관련 수입 항목을 초과 달성함.
- 참가비는 행성인 아카데미 워크숍과 송년회 참가비임.

- 작년 한 해 동안 다음세대재단의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기금을 받아 노동권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음. 지원사업 선정 이후 재단 측과 예산안 조율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져 행성인 예산안과도 조금의 차이가 있음. 관련 자세한 활동 내역은 보고 1. 2. 3) 참조.

- 23년 행성인 총회에서 재정사업 모금 목표로 2,500만원을 설정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사 관련 예산안을 재편성하였고 이에 내부적인 모금 목표는 3,400만원으로 설정되었음. 이에 맞춰 모금을 진행하였고 초과 달성함. 관련 자세한 활동 내역은 보고 1. 2. 1) 참조.

(3) 기타

- 임대료는 행성인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이사로 인해 변동이 생겨 예산과 다소 차이가 발생함. 이사 전에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이 공동 사용으로 매월 10만원씩 납부했으며(이사 후 공동 사용하지 않음), 이사 후에는 ‘모두의결혼’이 공동 사용 중으로 매월 25만원씩 납부 중임.

- 환급은 보증금 환급, 행성인에서 선지출 후 돌려받은 경우, 오입금/오결제 된 경우임. 큰 금액의 환급 건으로는 1) 서울퀴어퍼레이드 차량을 여러 단위에서 함께 준비하게 되면서 관련 준비비용을 행성인에서 선지출하고 돌려받은 경우(약 90만원) 2) 일시지정기탁해야 할 후원금을 행성인 계좌로 보낸 경우(50만원) 3) 이사 후 지출한 월세 세액 공제(60만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10만원 내외의 여러 건임.

- 적립해 두었던 금액 1,100만원을 모두 소진하였음.

4) 지출 결산

관	항	목	내역	2023년 예산	집행률(%)	2023년 결산
운영비	인건비	상근	기본급	41,847,920	99	41,605,780
		반상근		24,240,000	104	25,118,980
		복리후생비		2,880,000	100	2,880,000
			동행	480,000	100	480,000
	근속수당		1,440,000	100	1,440,000	

	직책수당	대표지원비	1,800,000	100	1,800,000	
		사무국장	1,200,000	100	1,200,000	
	퇴직적립금		6,300,000	100	6,300,000	
	상여금		3,500,000	100	3,500,000	
	기본급 소급	상승분 소급	400,000	100	400,000	
	세금	원천세, 연말정산	650,000	102	666,100	
	4 대보험	단체부담총액	15,500,000	97	15,029,960	
	인건비 소계			100,237,920	100	100,420,820
관 리 비	임대료		24,000,000	102	24,550,000	
	정수기		450,000	104	466,080	
	전기		1,500,000	118	1,763,000	
	복합기임대		1,080,000	98	1,054,000	
	통신	전화, 인터넷, 호스팅	1,600,000	102	1,632,629	
	관리비 소계			28,630,000	103	29,465,709
사 무 비	발송	우편발송	100,000	82	82,460	
	운반	짐운반	100,000	36	36,000	
	교통	여비, 출장비	200,000	0	0	
	홍보	메일링, 문자, 리플렛 등	500,000	196	978,650	
	수수료		30,000	15	4,400	
	사무비 소계			930,000	118	1,101,510
물 건 비	비품	비소모품, 수리	400,000	94	374,900	
	소모품		400,000	59	234,900	
	자료구입		100,000	31	31,100	
	물건비 소계			900,000	71	640,900
운영비 소계			130,697,920	101	131,628,939	
사 업 비	팀 별 사 업 및 운 영 회 의	워크샵및활동지원	LT, 참가비	1,200,000	36	435,000
		조정위원회		300,000	24	73,000
		운영회의		600,000	129	775,760
		사무국		400,000	20	80,000
		교육기획국		300,000	37	109,800
		성평등위원회		300,000	37	110,600
		노동권팀		600,000	75	449,928
		에이즈팀		600,000	87	524,700
		에이즈 기금		800,000		0

	트랜스팀		600,000	38	227,950
	미디어 TF 팀		600,000	19	111,900
	소계		6,300,000	46	2,898,638
기획사업	노동권 사업		2,000,000	57	1,130,690
	육우당 추모		1,000,000	101	1,013,000
	축제-퍼레이드		3,000,000	101	3,024,050
	기념품 제작		500,000	119	594,000
	연간보고서		1,000,000	107	1,065,000
	소계		7,500,000	91	6,826,740
회원사업	회원관리	신입회원/기념 선물	500,000	74	371,800
	회원모임/교육	디딤돌, 정기모임, 의무교육	1,000,000	48	480,430
	총회		1,000,000	52	523,000
	송년회		2,000,000	99	1,986,430
	소계		4,500,000	75	3,361,660
연대사업	활동비		500,000	65	325,750
	분담금		1,500,000	81	1,209,667
	후원		1,000,000	135	1,350,000
	소계		3,000,000	96	2,885,417
특별사업	아카데미		1,500,000	122	1,837,100
	캠페인		600,000	30	179,300
	기금사업	다음세대재단, 트랜스피플 기금	30,000,000	100	30,112,000
	재정사업	이사	20,000,000	189	37,760,389
	소계		52,100,000	134	69,888,789
사업비 소계			73,400,000	117	85,861,244
기타	예비비		300,000	83	249,000
	기타		0		50,000
	기타 소계		300,000	100	299,000
환급			200,000	428	855,100
지출 합계			204,597,920	107	218,644,283
적립금			4,800,000	0	0
이월금			13,093,260	160	20,930,399
총 합 계			222,491,180	108	239,574,682

5) 지출 설명

(1) 운영비

① 인건비

- 다음세대재단 기금 지원(매달 활동비 100 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11 월에 종료되면서 12 월에 활동비 100 만원을 행정인 예산으로 지출하였음.

- 그 외 인건비는 예산에 맞춰 지출됨.

② 관리비

- 이사로 인해 9~12 월 사이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크게 예산을 벗어나지 않았음.

③ 사무비

- 단체 리플렛 재고 소진으로 재인쇄하면서 홍보비를 초과 지출함.

④ 물건비

- 예산 안에서 지출함.

(2) 사업비

① 팀별사업

- 연중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출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 에이즈 기금은 에이즈 관련 사업 목적으로 회원 한 명이 후원한 금액으로 23 년에는 사용되지 않음.

② 기획사업

- 노동권 사업: 노동권 사업 목적으로 회원 한 명이 후원한 금액으로 23년에는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사업에 사용됨. 남은 금액은 24년으로 이월됨.
- 육우당 추모: 故 육우당 20 주기를 맞이하여 육우당 추모집 '내 혼은 꽃비되어'를 재발간하였음.
- 축제-퍼레이드: 서울, 인천, 춘천, 대구, 경남 쿼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운영하며 참여하였고, 서울에서는 차량도 운영하였음.
- 기념품 제작: 기존 신입회원 기념 선물 재고 소진으로 신규 굿즈를 제작함.
- 연간보고서: 2022 활동보고서 300부 인쇄.

③ 회원사업

- 회원관리: 주로 신입회원 기념 선물 발송비로 지출하였음.
- 회원모임/교육: 대부분 예산이 들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여 지출이 적었음.
- 총회: 장소 대관비 및 총회 자료집 인쇄비로 지출함. 장소 대관비가 저렴한 곳으로 대관하여 지출이 적었음.
- 송년회: 장소 대관비, 케이터링, 선물 구입 등으로 지출함. 예산에 맞춰 사용함.

④ 연대사업

- 행성인 이사 기금 마련 모금에 있어 연대단위의 후원 참여를 도모하며 연대 후원을 많이 함.
- 활동비와 분담금은 예산보다 적게 지출함.

⑤ 특별사업

- 아카데미: 워크숍 제반비용, 강사비, 뒤풀이 지원 등으로 지출함.
- 캠페인: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후속으로 진행한 캠페인 제반비용임.
- 기금사업
 - 다음세대재단의 ‘인권운동 및 활동 지원사업’ 기금을 받아 노동권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음. 자세한 활동 내역은 보고 1. 2. 3) 참조.
 - 트랜스피플 후원금을 물(마실권리)컵 제작에 사용하였고 기금사업 항목으로 편성함.
- 재정사업: 이사 제반 비용. 자세한 지출 내역은 보고 1. 2. 1) 참조.

(3) 기타

- 기타: 故 임보라 목사님 근조화환, 부조금, 추모 문화제 추모기금으로 지출함. 동료 활동가 모친상 부조금으로 지출함.
- 환급: 오입금/오결제 된 경우임. 큰 금액의 환급 건으로는 일시지정기탁해야 할 후원금을 행성인 계좌로 보낸 경우(50만원)가 있고 나머지는 10만원 내외의 여러 건임.
- 적립금/이월금: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정 금액 남길 수 있었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이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편성함. 따라서 결산상으로는 적립금은 0 원이고, 이월금은 초과 달성함.

보고 2. 2. 2023년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일: 2024년 1월 8일

감사인: 사비

참석자: 오소리, 호림

2023년 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사'입니다. 서울에서 공간을 구하다보면 고난과 좌절, 우울,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쉬지 않고 발품을 판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덕분에 조금 더 사람들이 드나들기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사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마음도 기우였습니다. 25년 넘게 활동한 단체의 힘은 역시 회원에 있습니다. 새 공간에 들어서면 회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성산동에서의 활동도 기대됩니다.

본 감사인은 행성인의 2023년 후원 수입 및 사업 수입 등 수입 전반,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재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수입금 입금내역, 결산서 및 지출내역 증빙을 실시하고 사업비 상세 내역과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실질적 살림살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통장거래내역에서 실제 수입, 지출을 따로 표기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 수입

수입의 대부분은 CMS 정기후원금, 비정기 후원금 등 후원 수입이었으며, 모든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달 신규회원이 가입했습니다. 이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활동력을 왕성하게 유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 지출

결산서상 모든 항목이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수증 증빙이 매우 꼼꼼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3) 특별사업-이사

행성인이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보증금과 같은 자산은 수입, 지출 결산표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의 드나듦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문제없이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산동 사무실 보증금은 증액된 만큼만 지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감사 사비

보고 안건 3

2023년 연대활동 보고 및 평가

보고 3. 2023년 연대활동 보고 및 평가

1)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당: 호림)

(1) 2023년 활동 보고

- 핵심사업
 - 모두의 결혼 캠페인 런칭 및 활동 (→ 혼인평등연대 활동에서 상세 보고)
 - 제 15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퀴어/운동/정의” (2 월 17-18 일)
 - 2023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투쟁주간 (5 월 17-21 일)
 - 제 6 회 무지개행동 활동가대회 “무지무지 친해지길 바라” (11 월 3-5 일)
- 주요 활동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날 오픈마이크 행사 (3 월 31 일)
 - 이총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혐오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5 월 23 일)
 - 소수자 배제하고 광장을 막는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7 월 1 일)
 - 트랜스젠더 학생을 배제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OMR 성별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7 월 11 일)
 - 군형법 제 92 조의 6 및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 대응 (10 월 26 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반대 의견서 제출 (12 월 11 일)
 - 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 의견 제출 (2024 년 1 월 22 일)
- 국제연대
 - 유엔 제 4 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대응 활동
 - 제 5 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활동
 - 동아시아 차별금지 네트워크(East Asia Alliance o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참여

(2) 2024년 활동 계획

- 핵심사업
 - 모두의 결혼 캠페인 활동
 - 제 16 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퀴어가 어둠을 헤치고 (2 월 17-18 일)
 - 2023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투쟁주간 (5 월 중)
 - 제 6 회 무지개행동 활동가대회 (10-11 월 중)
- 주요 활동
 - 제 22 대 총선 및 제 22 대 국회 대응 활동
- 국제연대
 - 동아시아 차별금지 네트워크(East Asia Alliance o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참여
- 기타
 - 연 4 회 전체회의 진행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상시 연대활동 진행
 - 기타 차별 사안에 대한 현안 대응

(3) 연대단위 담당자 총평

- 무지개행동(이하 '무행')은 2023년 모두의 결혼 캠페인 런칭 및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주요 핵심사업인 성소수자 인권포럼, 국제 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투쟁 주간 사업, 무지개행동 활동가 대회 등 무행의 주요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주요 활동으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날 오픈마이크 행사 개최, 군형법 제 92조의6 및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 대응 등을 진행하였음. 또한, 국제연대 활동으로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및 제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활동을 통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 최근 몇년 동안 무행의 핵심 사업과 주요 활동의 기획과 수행이 주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 속에서 집행위원회의 업무 과중이 심한 상황. 주요 핵심사업은 소속단위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모집하여 진행하지만, 기획단 모집이나 집행위원회 총원 등 활동가 총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무행 소속 단위의 활동 참여를 강화하고, 무행 활동과 관련한 신규 활동가 조직에 힘 쓸 필요가 있음.

- 2023년 주요 활동은 다음세대재단 ‘인권 운동 및 활동 지원 사업’의 기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무행의 자체 재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담금 인상이나 자체 기금사업 등 안정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임.

2) 혼인평등연대 (모두의결혼) (담당: 호림)

(1) 2023년 활동 보고

- 조직

- 혼인평등연대와 무지개행동의 공동 캠페인 조직인 ‘모두의 결혼, 사랑이 이길 때까지’를 런칭하고, 8월 상임활동가를 채용하면서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현재 전체회의와 사무국 아래에 커뮤니티 조직팀, 국회/정부 대응팀, 대중캠페인팀, 시민사회조직팀, 디지털컨텐츠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수행 중임.

- 소송

- 2월 21일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항소심 승소
 - 항소심 승소 이후 공중파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의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이루어짐
 - 3/9 국회 토론회 개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주관)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 3/24 커뮤니티 파티 진행 - 동성부부 항소심 승소 축하파티 “사랑이

이겼다 혼인평등으로 가져!”

- 2024년 1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고로 상고심 계류 중

- **입법**

-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 혼인평등법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동시 발의
- 6/7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6/28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국회 토론회 개최

- **대중캠페인**

- 모두의 결혼 캠페인 런칭

- 소셜미디어 채널 및 홈페이지 오픈
- 6/20 모두의 결혼 캠페인 런칭 기자회견 진행
- 6/22 캠페인 동영상 공개
- 6/25 캠페인 런칭 파티 “Marriage 4 All Party”

- 캠페인 동영상

- 옥외 전광판(양재 다보빌딩, 8/4-9/3) 및 소셜미디어 광고 진행

-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 11/22 서명운동 출범 선포 기자회견
- 오프라인 서명 운동 및 거리캠페인 진행
- 서명운동 홍보 포스터 배포

- 커뮤니티/시민사회
 - 2023년 참여 행사 및 일정
 - 춘천/대구/서울/인천/경남 퀴어문화축제 부스 및 행진 참여
 - 38여성대회, 장애인권영화제, 923기후정의행진, 포천 인권문화제 등 부스 참여
 - 아이다호 투쟁주간 영화 <두사람 상영회> 개최, 평등세상 가족구성권 포럼, 서울커뮤니티라디오 파티 행사 등 참여
 - 혼인평등안내서 발간
 - 동성혼 법제화 의제 소개를 위한 혼인평등안내서 발간
 - 혼인평등안내서 및 굿즈 배포: 무행 소속단위, 인권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및 국가기관 등
 - 시민사회간담회
 - 주요 인권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연속 간담회 진행 중
 - 커뮤니티 조직
 -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 대상의 표준 강의안 마련 - 부산 흥예당, 광주 여성민우회 강연 진행
 - 혼인평등워크숍
 - 동성부부를 대상, 현재의 법제도적 권리와 관련한 정보 전달, 혼인평등 운동의 활동 방향과 계획 공유, 개개인의 일상에서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안내하는 워크숍
 - 11/25 1차 워크숍 진행, 1/6 2차 워크숍 진행, 2024년 연중 격월로 진행 예정

(2) 2024년 활동 계획

- **소송**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통한 혼인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혼인평등소송 제기 예정 (10월 중)
 - 현재 잠재적인 원고가 될 수 있는 동성 커플 미팅 진행 중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상고심 대응
- **입법**
 - 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및 거리 캠페인 지속 진행
 - 혼인평등법 재발의를 목표로 한 22대 총선 및 국회 대응 활동
- **커뮤니티**
 - 지역별 퀴어문화축제 참여
 - 혼인평등워크숍 연중 진행
 - 파티 등 성소수자 커뮤니티 대상 행사 및 교육 진행
- **시민사회**
 - 시민사회 간담회 진행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대중 강연 등
- **기타**
 - 동성부부의 삶의 모습을 가시화 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홈페이지 제작
 - 캠페인 확장을 위한 자원활동가 및 정기후원인 조직

(3) 연대단위 담당자 총평

- 무지개행동과 공동으로 혼인평등 운동을 위한 캠페인 조직인 ‘모두의결혼’을 런칭하고,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는 한 해였음. 캠페인 조직의 출범 이후,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영상 배포, 런칭파티, 각 지역별 퀴어문화축제와 시민사회 행사 참여 등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였으며, 혼인평등 의제를 소개하고, 향후 활동을 위한 기

초자료인 「혼인평등안내서」를 발간하고, 간담회 및 강연 표준 구성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들을 진행하였음.

- 한편, 혼인평등과 관련하여 소송 및 입법 영역에서 모두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내는 한 해이기도 했음. 2월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항소심 승소는 한국의 법원이 최초로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깊으며, 이후 공중파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의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5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혼인평등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로 중요한 정치적 모멘텀이 되었음.

- 2024년은 혼인평등소송 제기라는 운동의 중요한 기점이 있을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22대 총선과 국회 개원이라는 정치적 변화가 기다리고 있음. 이들 주요 기점을 중심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조직, 대중 캠페인 등을 수행하여, 혼인평등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자 계획임.

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당: 지오)

※ 2023년 차제연 활동 방향

- 1) '평등'을 한국사회의 쟁점으로 제기하고 시대적 요구로 등장시키자
- 2) 구조적 차별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수평적 연대를 가시화하자
- 3) 제정운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아가며 평등의 전망을 잇자

※ 차제연 자체 추진활동 및 기획/연대활동

- 1.18(수) 대구 경북대 무슬림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와 이슬람사원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 1.20(금)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 지지 신문광고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 3.19(일) 2023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 보장하라!” 기념대회 및 행진
- 4.20(목) 2023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 4.24(월) 대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지역사회 인권·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부 협약식
- 4.28(금)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5.31(월)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공동기자회견 <21 대 국회 임기 만료 D-1 년, 21 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 6.30(금) 평등법 입법 연속 토론회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 7.1(토) 서울시 차별행정 규탄 행동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 8 월~현재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와 총선 시기 공동대응
- 5~11 월 충남 지역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관련 대응
- 10~12 월 전국간담회 <평등과 존엄의 전망을 찾아서>
- 12.9(토) 세계인권선언 75 주년,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월기대회’

※ 이외에도 50 여군데 행사 집회 및 기자회견 발언 참여

※ 18 건의 성명 및 논평 발표

※ 뉴스레터 <월간 평등 UP> 발행

취지 및 내용 : 차별혐오 사안에 대한 개입 활동, 현재 진행 중인 차제연 활동 및 소속단위들의 활동을 연결하는 활동들을 일상적으로 전달. 기존 <월간 평등 UP> 뉴스레터 기획 및 발행 재추진. 4 월부터 발행 시작.

2023년 차제연은 평등의 연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활동의 방향으로 세웠다. 이전과 같이 큰 투쟁이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연중 인권운동 안에서 연대요청을 많이 받았고 다른 투쟁에 힘을 싣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차제연에 요청이 많았던 만큼 해야할 역할이 보이기도 했다. 지역사회나 영역 내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는 만큼 만나고 연대하려 했던 시도들은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만큼 가시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별금지법과 현장의 목소리, 평등/반차별을 연결짓고 알려내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가시화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한 해였다. 대중조직의 기반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낼 것인지도 여전히 남은 과제이다.

한편으로, 차제연은 23년에 운영체계를 개편하고자 22년 후반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과하게 집중된 역할을 나누어 집행위원회 중심의 논의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논의를 통해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총선 전에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를 24년의 방향과 함께 짚어보고 실행 가능한 집행력을 갖추고자 한다.

4)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담당: 웅)

- 지난해에 이어 엠폭스 관련한 커뮤니티와 언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연초 백신접종이 진행됐는데, 보건당국을 모니터링하고 소통할 수 있던 것은 그래도 코로나 대응에 이어 경험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서울퀴퍼에서는 길리어드 규탄 캠페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초국적제약회사에 대한 입장의 합의 기준을 높이고 공동대응을 했던 첫 해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내부에도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에 대한 문제의 공감대를 높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와 성소수자, PL 단체들이 함께 규탄행진을 조직할 수 있던 것은 2008년 동인련에서 로슈 규탄 행동을 조직한 이후 의미있는 기획이었습니다. 다만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소수자운동 안에서 좀 더 깊은 이해의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차후 초국적 제약회사를 상대로 어떤 방식의 항의와 대중 상대의 메시지를 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어가야 합니다.

- 전파매개행위죄의 경우 10 월 헌재판결 이후로 의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그래도 첫 판결임을 고려하면 2022 년 진행한 변론이 의미가 있었고, 19 조가 어째서 도태된 법조항인지를 사법부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추후의 대중활동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근래 HIV/AIDS 인권운동은 의제가 다양해졌습니다. 이주, 구금, 약물, 노동, 의료차별 등은 새로 등장한 이슈이기보다는 이전부터 사건들이 있었지만 의제화가 필요했던 분야들입니다. 한국의 신규 감염인 중 20 프로 이상이 외국인인 현실과 더불어 감염인의 생애주기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의제들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네트워크에서는 의제별로 팀을 구성해서 대응했는데, 올해 팀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에서는 다른 활동가들과 각각의 이슈에 대한 공부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 행성인에서는 HIV/AIDS 인권팀에서 활동하는 민지와 남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여 주요 역할들을 해나가는 중입니다.
- 2023 년 네트워크는 연대체로서 활동과 역할 조정에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KNP+는 법인단체로, 청소년청년커뮤니티 알은 사무실을 구하고 안정된 활동을 모색하는 중에 에이즈운동은 사건 대응을 놓지 않으면서도 이슈 업데이트나 내부 일상사업 등을 안정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속 단위별로 집중하는 활동을 하면서, 공동의 활동을 갱신해나갈 때입니다. 관련하여 2024 년에는 의제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회의방식 변화나 집중활동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5)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성넷)

(담당: 오소리)

2023년 초, 국방부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악안을 저지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네 번째 합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본래 이슈가 될만한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진행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의 경우 공개변론 없이 선고 3

일 전에 공지가 되면서, 시민사회 간담회, 의견서 조직, 언론 기고 등 준비 중이던 활동들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결과는 합헌이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합헌 판결 때와 달리 이번 판결 때는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위헌 의견을 밝혔습니다. 군성넷에서는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위헌 의견에 주목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사문화된 법으로 말하며 폐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 편 작년 한해는 군 인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활동들을 모색하고 시범 운영한 해이기도 합니다. 전역자 대상 내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예비입영자 길라잡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진행해보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보다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전역한 성소수자의 과거 입대 준비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담당: 웅)

- 그동안 조력했던 트랜스여성 난민이 네덜란드로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 후원과 송별행사 등을 기획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에서 모든 성소수자 난민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원 전반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조력은 무엇인지, 성소수자 난민이 한국에 체류하고 떠나거나 거주하는 동안 어떤 조력과 관계를 필요로 하는가를 이야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 하반기에는 상담과 조력활동을 하는 성소수자, PL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상담조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행성인 사무국에서도 성소수자 난민에 대한 상담과 조력을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 현재 행성인에서는 남웅 상임활동가가 네트워크 담당자로 참여합니다. 2023년에는 하반기 상담조력 워크숍을 제안하고 기획 및 진행에 참여했습니다.

- 난민넷은 그동안 난민 지원과 조력을 중심으로 활동가마다 저마다 활동을 제안받거나 기획해서 해나갔습니다. 2024년에는 네트워크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면서, 연중 성소수자 난민 현황과 이슈, 판례 등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7)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담당: 호림)

(1) 2023년 활동 보고

• 주요 활동

- 2023 기후정의 활동가 캠프 “기후정의로 세계를 변혁하자” (1월 12-14일)
-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월 14일)
- 2024 총선, 기후정의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8월 10일)
- N개의 기후정의학교 (9월-11월)
- 923 기후정의행진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9월 23일)
- N개의 기후정의 선언대회 (12월 16일)

(2) 연대단위 담당자 총평

- 행성인은 2023년 기후정의동맹 운영위원회와 기후정의선언팀 구성원으로 결합해 왔으며, 414 기후정의파업과 923 기후정의행진 등 기후정의동맹의 주요한 활동에 단체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였음. 특히, 기후정의선언팀 활동은 그동안 전통적인 환경운동의 의제로 다뤄져왔던 기후위기와 정의의 문제를 시민사회 전반의 주요 의제로 가시화 하고, 여성, 장애, 이주, 빈곤,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과 밀접하게 결부된 이슈임을 환기하는데 기여하였음.

- 동시에 기후정의동맹 연대활동 담당자가 주요 성소수자 연대단위의 담당자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정의동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동맹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행성인 내부에서 공유하고 논의하는 단체 활동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특히, 기후정의선언팀 구성원으로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정의 선언대회에 성소수자 운동의 선언을 제출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음.

- 2024년에는 기후정의동맹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단체 내에서 기후정의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8) 기타 사회연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본부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연대활동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활동중단 중)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9) 2024년 새롭게 결합한 연대체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 권리중심노동자대책위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고 안건 4

2023년 소모임 활동 및 2024년 소모임 등록 현황 보고

보고 4. 1. 2023년 소모임 활동

1) 2023년 소모임 활동 보고

(1) 책임기 소모임 완독

행성인 소모임 활동 보고서		
소모임명		책임기 소모임 완독
소모임 보고	활동기간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모임횟수	10회
	회원추이	2023년: 17명 (23년 정회원: 5명)
활동 보고	내용	1월 17일 남자들의 방 (지오님 발제)
		3월 8일 가족을 구성할 권리 (안시님 발제)
		4월 5일 좌파의 길 (토리님 발제)
		4월 28일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나단님 발제)
		5월 25일 빈곤과정 (안시님 발제)
		6월 21일 공정이후의 세계 (조나단님 발제)
		7월 31일 가재가 노래하는 곳 (지오님 발제)
		8월 28일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이도사님 발제)
		9월 18일 암컷들 (제니님 발제)
		10월 25일 가족 각본 (누리님 발제)
	평가	1번의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모두 줌으로 진행함.
	계획	2024년 1월 모임은 1월 21일 예정임.
작성자 확인: 조나단		

(2) 행성인 몸짓패

행성인 소모임 활동 보고서			
소모임명		행성인 몸짓패	
소모임 보고	활동기간	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모임횟수	32회	
	회원추이	2023년: 13명 (23년 정회원: 3명)	
활동 보고	내용	<p>모임 일정: 1/10, 1/18, 1/25, 1/31, 2/14, 3/14, 4/4, 4/11, 4/18, 4/25, 5/16, 5/23, 5/30, 6/20, 6/27, 7/4, 7/11, 7/25, 8/1, 8/22, 8/29, 9/5, 9/11, 9/18, 9/26, 10/17, 10/24, 11/7, 11/21, 11/28, 12/12, 12/19</p> <p>모임 내용: ‘또다시 앞으로’, ‘바로 그 한 사람이’, ‘불나비’, ‘소나기’ 민중가요에 맞춰 몸짓 연습 및 공연함. 진짜 사장 나와라 챌린지 참여함.</p> <p>공연 2월 15일 <그리운 백기완의 불호령> 백기완 2주기 추모문화제 공연 2월 25일 <엔진 콘덕 혼인신고 축하파티> 공연 6월 14일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 공연</p>	
		평가	정회원, 후원회원이 모여 몸짓 연습중임. 매주 모이는 인원은 다르지만 4명 이상이 될 때 연습을 진행함. 꾸준히 참여중인 고정 소모임원은 약 7명임.
		계획	2024년 1월 모임은 1월 9일 임.
작성자 확인: 조나단			

(3) 행성인 큐리블

행성인 소모임 활동 보고서		
소모임명		행성인 큐리블
소모임 보고	활동기간	2023.01.14.~2023.12.29
	모임횟수	13회
	회원추이	수다방 회원(9명), 공지방 회원(12명)
활동보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일정: 1/14, 3/26, 4/30, 5/21, 6/25, 7/30, 8/13, 8/20, 9/3, 9/23, 11/18, 11/23, 12/29 • 모임 내용: 풋살 자체 운동 및 레슨, 24년 활동 계획 워크샵 진행. • 경기 9/23 : 한국레즈비언상담소(레포츠)와 친선 경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풋살 : 친선경기를 위한 강습이 좋았음. 앞으로 체계화된 훈련 및 연습이 필요함. 운동(movement)을 위한 운동(exercise)이 가능했음. 짧은 시간 안에 애정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했고 운동을 편하게 해서 좋았음. 풋살 말고 다른 운동도 하면 좋을 듯. (24년에는 각자 운동 부장을 맡아서 운영해보기) • 등산: (아차산) 문턱이 낮다고 느껴졌음. 한라산 가면 좋을 듯. (관악산) 등산 노쇼가 너무 많았음. 둘레길 걷기는 자주 하면 좋을 듯 함. • 친선경기: 경기 경험이 많으면 좋을 듯 함. 향후 친선경기 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혼성팀, 성별 구분 없는 팀들을 찾아서 경

		<p>기를 제안해야 하는 것인지?”). 큐리블이 어떤 상대팀과 만나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음. 성중립 화장실/샤워실/탈의실에 대한 고민. 처음으로 다른 팀과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음. 경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티셔츠 제작: 우리만의 색이 있어서 좋았음. 친선 경기 전에 만들 수 있어서 활용이 가능했음. 집 앞에서 운동할 때 입기 좋았음. 로고 만드는 과정이 즐거웠음. 좋아하는 색으로 나와서 좋았음.
	<p>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활동 계획 일정 • 풋살/배드민턴/산책/농구/등산부 설립. 헬스부도 있었으나 헬스장(색다른집)의 사정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움. 당분간 원데이 클래스 부 추진 예정.
		<p>작성자 확인 : 이소연</p>

보고 4. 2. 2024년 소모임 등록 현황 보고

1) 2024년 소모임 등록 현황

(1) 책읽기 소모임 완독

책읽기 모임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뜻이 있어 온 행성인 회원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는 통로로 고안되었습니다. 사안과 이슈 만이 아니라 책을 통해 일상적인 만남을 나누면서 행성인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에 책은 매우 좋은 도구이며, 우리를 더욱 더 가깝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2024년 시즌 5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는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 행성인 몸짓패

행성인 몸짓패는 민중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행성인 소모임입니다. 몸짓은 한국 민중 투쟁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투쟁에 연대하는 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저녁에 서울 당산역 근처 연습실에서 몸짓 연습을 합니다. 투쟁 현장에 연대공연을 가기도 하고요. 집회에서 무대에 오르는 연대 활동을 하고 싶으셨던 분, 춤을 좋아하시는 분, 몸짓 공연을 보면 가슴이 뛰셨던 분, 몸짓이 뭔지 몰라 궁금하신 분들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3) 행성인 큐리블

큐리블은 이분화된 성별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정체성의 사람들이 함께 종합 스포츠(주로 풋살)를 즐길 수 있는 모임입니다. 행성인 회원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함께 친목을 다지며 다른 팀과 친선경기도 하면서 쿼어 스포츠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도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행성인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풋살 레슨을 함께 받고 있고, 조만간 농구, 배드민턴, 산책, 등산, 실내클라이밍 할 예정입니다.)

(4) T&F(트랜스젠더&페미니스트) *(신설)*

트랜스젠더 정체성과 페미니스트 정체성 간의 교차하는 지점에 대한 패러다임 제시하고 LGBTQ로 대표되는 퀴어 운동에서의 시스젠더 중심주의와 트랜스젠더퀴어만이 겪는 고유한 억압의 맥락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5) (가)큐레션도 *(신설)*

행성인 밴드 소모임 (가)큐레션도는 풍류와 음악을 향유하는 퀴어밴드입니다. 합주를 원하는 각자의 악기와 곡을 나누며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집회나 행사에 초청되면 무대 공연을 올립니다. 하지만 친목도모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매니저 有)

(6) 큐플레이 *(신설)*

"보드게임 좋아하는 행성인 여기여기 붙어라~!" 큐플레이는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는 소모임입니다. 과거 존재했던 온라인 퀴즈게임인 '큐플레이'의 이름을 차용했으며 퀴어(Queer)들의 놀이(Play)라는 뜻입니다. 매번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보드게임을 선정하고 맛있는 술과 음식을 곁들이며 보드게임을 즐겨보아요. 보드게임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배우면서 즐기는 신나는 게임~♪"

※ 각 소모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행성인 사무국 (lgbtaction@gmail.com)으로 문의주시면 소모임과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 소모임 등록과 참여 방법

(1) 행성인 소모임이란?

- 활동팀과는 다르게 취미활동 등 회원들의 관심사에 따라 모이는 그룹입니다. (소모임 예시: 책읽기/만들기/등산/영화/맛집투어 모임 등)
- 의무교육을 이수한 행성인 정회원 3인 이상이 모일 경우 새롭게 소모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소모임은 연 1회 (정기 회원총회) 활동보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모임 등록 절차

- 연 2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간 - 매해 9월 1일, 정기 회원총회) 정식 등록 전에는 소모임(준)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 등록 기간 전에 [등록 신청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 등록 내용: 소모임원(소모임 담당자 포함하여 정회원 3인 이상), 소모임 이름, 소모임 소개

(3) 소모임을 등록하고 싶은데 정회원 3인 모으는 게 어려워요.

- 등록하고 싶은 소모임에 대한 소개와 홍보문구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행성인 뉴스레터 등을 통해 함께할 정회원 모집을 홍보해드립니다.

※ 정회원 자격 및 소모임 참여 문의는 행성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행성인 사무국 lgbtaction@gmail.com / 02-715-9984

의결 안건 1

임원 인준의 건

의결 1. 1.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사무국장

- 운영위원: 지오(운영위원장), 오소리(사무국장), 남웅, 민해리, 소유, 슈미, 호림

- 지오 (운영위원장)

- 활동 경력

2015 년 가입
2016 년 '성소수자구술아카이브' 참여
2017 년 - 2019 년 웹진기획팀
2017 년 - 현재 행성인 상임활동
2018 년 행성인 비상대책위원
2019 년 - 현재 운영위원
2019 년 - 현재 성평등위원회
2017 년 -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 년 - 현재 혼인평등연대
2021 년 - 현재 행성인 운영위원장

2023 년에 행성인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 더욱 다채로운 활동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4 년은 행성인의 재정 확대가 더욱 절실한 해이기도 합니다. 활동과 조직 그리고 재정은 떨어질 수 없는 만큼 이를 잘 연결하여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4 월 총선을 전후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성소수자 운동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행성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팎을 잘 살피며 가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추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내규 중

3. 운영위원장

1) 자격: 운영위원장은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과 1년 이상 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원, 후원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업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추천인

- 추천인

번호	이름	서명	응원 한 마디!
1	이도연	이도연	환이팅입니다~
2	여기동	여기동	음유패션 늘, 항상.
3	최유진	최유진	응원합니다!
4	김민서	김민서	!!
5	유정화	유정화	성실적인 연방을 기대합니다!
6	박아름	박아름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	김서훈 (영광)	김서훈	이 사람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8	노성욱	노성욱	부탁합니다!
9	강병권	강병권	언제나 늘 힘차게 !!
10	독진석	독진석	늘 수고하세요.
11	유재 (리앤)	유재	Fighting!!!
12	조나단 (재민)	조나단	재민! 응원합니다! 힘냅!
13	윤제니	윤제니	제니님! 항상 유쾌하고 밝은 리더님 늘 응원합니다!
14	김희	김희	김희님! 강력 추천합니다!
15	장혜경	장혜경	제니님 한번 더 수고해주세요!
16	장영민	장영민	지민님 항상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7	김민지	김민지	환이팅♡
18	박정미	박정미	파티팅 & 항상 금마와용화
19	최유진	최유진	최유진...
20	이현석	이현석	환이팅!!! 응원합니다!

● 오소리 (사무국장)

- 활동 경력

2013. 5 가입
2013. 6 - 2019. 2 행성인 웹진기획팀 활동
2015. 1 - 2022. 2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
2015. 2 - 2018. 3 행성인 운영위원
2015 .8 - 2016. 2 행성인 반상임활동가
2016. 3 - 현재 행성인 상임활동가
2018. 4 - 2018. 11 행성인 비상대책위원
2019. 2 - 2022.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2019. 2 - 현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2019. 2 - 현재 교육기획국 활동
2019. 2 - 현재 행성인 운영위원

행성인이 성산동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산동 사무실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대흥동 사무실과 다르게, 상임활동가들의 사무공간과 회원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공간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거리만큼 올 한 해는 저도 보다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 간 팀 활동 없이 교육기획국에서 신입회원모임과 의무교육 교안을 만들고 다듬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올해에는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활동을 시작하고 이와 더불어 보드게임 소모임을 신설하여 회원분들과 더 자주 만나 뵙고자 합니다. 행성인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남웅

- 활동 경력

2003 행성인 가입
2010-행성인 HIV/AIDS인권팀 활동
2013 행성인 HIV/AIDS인권팀장

2013-2017, 2019-2023 행성인 운영위원
 2014-2020 행성인 상임활동
 2022-현재 반상임활동
 2018 행성인 비상대책위 활동
 2015-2017, 2019, 2020 행성인 운영위원장
 현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

행성인은 활동을 만들고 사업을 기획 및 집행하는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이지만,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 나누고, 관계를 넓히며 일상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사와 관심 이슈를 찾아 활동팀이나 소모임을 제안하고, 동료와 함께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운동단체의 효능이자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성인에서 웹진을 만들고 활동팀에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회원들과 안부를 나누고 활동에 대한 작은 토론들을 이어갑니다. 더불어 몇몇 연대단체에 참여하고, 바깥으로 귀어들의 예술창작활동에 관심을 갖고 평론활동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관계와 언어를 만들면서 활동의 방식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동료를 만나고 주제를 확장하는 일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올해는 행성인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어떻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기모임과 사업 외에 크고 작은 모임과 토론의 자리를 만들고, 활동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변화의 열망에 대한 보다 큰 꿈을 꾸기 위해, 행성인의 동료들과 함께 생애주기를 상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민해리

- 활동 경력

2013 행성인 가입
 2014-2018 행성인 여성모임 활동
 2015 행성인 운영위원
 2018 행성인 비상대책위 활동

2021 행성인 흥시대감

2022~현재 행성인 운영위원

작년엔 단체에서 무언갈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버거운 마음에 실행하지 못한 계획들이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행성인은 회원 단체인데, 왜 혼자 하려고만 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오가며 자주 마주쳤지만 말 한번 건네지 못했던 회원들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올해는 회원들에게 친근할 수 있는 단체는 무엇인지 고민하며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지개 깃발이 날리는 행성인의 집회 현장과 다양한 의제가 담긴 회원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널널하고도 밝은 운영위원이 되어보겠습니다. 투쟁!

● 소유

- 활동 경력

2013년 행성인 가입

2014년 - 2020년 성소수자노동권팀 활동

2020년 - 현재 책임기 소모임 완독 활동

2023년 행성인 운영위원

그외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IT산업노동조합에서 활동하였음.

작년에 처음 운영위원을 맡으며, 회원분들께 다가가기와 행성인과 활동목표를 알리기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느 해보다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가까워졌지만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여건에 맞서 운영위원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한편 IT 노동자로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행성인과 성소수자 운동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회원분들과 함께 단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며 운동과 단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슈미

- 활동 경력

2016년 행성인 가입
2016년-현재 성소수자노동권팀 활동
2018년 조직 개편 TF
2018년 운영 준비단
2019년-현재 운영위원
2020년-현재 성소수자노동권팀 팀장

이만큼 운영위원을 하면 모든 의제에 해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르는게 많습니다. 가끔 어떤 질문을 하는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운영위원을 하고 싶습니다. 행성인의 미션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한다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멈칫하게 되는 순간 논의는 조심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행성인의 다양한 자리에서 질문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호림

- 활동 경력

2011년 가입
2011년 - 2017년 HIV/AIDS 인권팀 활동
2013-2017, 2019-2020, 2022-현재 행성인 운영위원
2015-2017 행성인 운영위원장
2022 행성인 반상임활동가
2023-현재 행성인 상임활동가
현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기후정의동맹, 성소수자대학원생/신진연구자네트워크 활동

운영위원의 역할을 맡아 온 지난 몇 년 동안 총회 운영위원 인사말에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행성인 내에서의 회원활동에 비해 여러 연대단위의 담당자로 역할하며 이들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게 되는 상황에서 회원들과 보다 친밀하게 관계 맺지 못해 온 자신에 대한 반성과 부채감,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 총회에서도 비슷한 인사말을 남겼고, 작년을 돌아보며 올해의 활동을 계획하는 지금도 그 때와 비슷한 반성과 부채감,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전과 조금 다른 다짐으로 총회를 준비합니다. 각종 의제 운동이 연대단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성소수자 운동의 현재의 조건 위에서 무지개행동 집행위원과 모두의결혼 캠페인의 구심이 되는 활동가로 일하는 것이 행성인 활동가인 제가 맡은 중요한 역할임을 명확히 인식하려 합니다. 올해는 특히 22대 총선과 혼인평등소송 제기 등 무지개행동과 모두의결혼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행성인 상임활동가이자 운영위원으로서 성소수자 인권의 진전을 위한 주요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연대단위 담당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다른 상임활동가들에 비해 행성인의 팀과 소모임 활동 등에 긴밀하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내년 이맘 때에도 예년과 비슷한 아쉬움을 남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행성인 내에서 연대단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활동과 마주한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연대단위와 단체 내의 논의와 활동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의결 1. 2. 조정위원장

- 덕현

- 활동 경력

2007년 줌 가입

2011년~2014년 노동권팀, 성소수자인권교육팀, 운영위원, 상근활동

2014년 운영위원장

2017년 회원교육 준비모임

2018년 조정위원

2021년 ~ 현재 성평등위원회

2023년에 조정위원장을 맡은 덕현입니다. 2023년에는 조정위원회 메일로 접수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한 해 더 조정위원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준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의결 1.3. 감사

- 앤디

- 활동 경력

2018년-2019년: 행성인 웹진기획팀 팀원

2020년-현재: 행성인 성평등위원회 팀원

안녕하세요! 행성인 앤디입니다. 처음으로 행성인 감사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부족하지만 대학교 재학 시절 경영학부생으로서 학습했었고 또한 자격증 준비를 하며 습득한 회계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성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행성인의 재정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사항〉

-재경관리사: 자격등록 번호 0-84-000**

-신용분석사: 자격번호 21010139**

-전산회계 1급: 자격번호 21096116**

의결 안건 2

공익단체 등록에 관한 건

의결 2. 공익 단체 등록에 관한 건

2025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명으로 공익단체 등록을 목표로 2024년 연중 사전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재)인권재단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의 지원을 받는 재정발전소 회원단체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행성인 회비 납부는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지정하여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CMS 출금계좌와 기부금영수증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행성인은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 CMS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 지원 기간이 2024년을 끝으로 만료됩니다.

둘째, 행성인이 꾸준히 성장한 덕분에 자체 CMS 운영 역량을 키웠고,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등록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익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자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일시후원 시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문자 모금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모금 사업이 가능하여 후원/모금 운영의 폭이 넓어집니다.

공익단체 등록 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고유의 이름으로 등록할 시, CMS 출금계좌와 기부금영수증에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로 표기되어 일부 회원들의 경우 세액 공제 시 단체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성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운동단체로서 성소수자의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많은 회원들이 단체명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실천의 과정은 단체의 지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향과 지향을 고려한다면 단체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고유의 이름으로 공익단체를 등록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으로서 가장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단체명으로 등록 시에는 회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총회 이후 공익단체 등록 변경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4년 총회에서 독립 안건, 정관 개정 안건 의결 → 24년 9월 공익 단체 신청 → 25년 공익 단체 등록 → 회원가입 페이지 수정
- 기부금 단체 등록 이후
 - 매년 3월 결산 보고, 4월 기부금 활용실적 보고, 6월 세무서 보고
 - 기부금품법 준수, 복식부기 등 회계 신경써야 함
 - CMS관리 업무
 - 독립 시 누수 발생할 것 (대략 15%), 대비해서 후원 사업 필요.

최소 2025년 이후부터 변경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경 절차가 진행될 때는 회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뜻합니다. 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참고 바랍니다.

의결 안건 3

정관 개정 의결의 건

의결 3. 정관 개정 의결의 건

공익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사목의 지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관련 정관 내용을 개정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 (수입)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수입)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비, <u>일반후원금</u> , 기타수입 등으로 총당한다. ② <u>본회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u>
제30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②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③ <u>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u>
제9장 보칙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단 귀속단체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9장 보칙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u> 단 귀속단체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의결 안건 4

**2024년 활동 목표
및 계획 의결의 건**

의결 4. 1. 2024년 활동 목표

행성인 조직 역량 강화의 해

1) 배경

(1) 상임(전업)활동가 4인 체제의 불안정성

행성인은 2017년부터 상임활동가 4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최소 4인이 전업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립 이래 행성인은 국내 성소수자 운동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단체로 운동 내 많은 역할들을 자임해 왔습니다. 연대단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소수자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사안에도 긴밀하게 결합하여 영역을 대표하는 인권운동단체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는 상임활동가들의 역할이 상당하였습니다. 현재 10여 개의 상시적 연대단위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한시적 연대체에 결합하기도 합니다.

한편 행성인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을 만들어내는 회원단체입니다. 행성인의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활동이 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상임활동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들을 활동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하고 챙겨야 할 일들이 있고 이는 상임활동가들의 주요한 역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단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4인의 활동가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성인의 4인 체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상임활동가 4인 중 3인은 올해 반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정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으며, 업무의 내용은 그대로이니 사실상 감봉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상임활동가 4인이 생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행성인의 가장 시급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축소되어 온 회원 사업비

한편, 행성인의 팀활동 및 사업비 역시 코로나 이후 축소되어 왔습니다. 행성인의 중추인 회원 활동을 보장하고 행성인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매년 기금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기금은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행성인에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신입회원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상임활동가 4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이러한 회원들의 활동을 잘 펼쳐내고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직강화

행성인은 2022년 상임활동가 4인 만들기 프로젝트, 2023년 이사 프로젝트를 통해 4인 체제를 위한 제반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목표로 조직의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직 강화의 목표는 오랫동안 행성인의 과제로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행성인이 목표로 한 조직강화는 지속가능한 운영에 맞닿고 이는 재정 안정성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상임활동가 4인의 활동도 보장할 수 있고 회원들의 활동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재정 확보는 행성인의 후원인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가능하고, 이는 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성인이라는 단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행성인의 조직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 목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1천명의 회원을 조직하는 장기과제로 조직역량 강화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2024년은 그 첫 번째 해가 될 것입니다. 1천명의 회원들과 함께 2027년, 행성인 30주년을 맞이 합시다.

- 1,000명 회원 만들기 3개년 첫 번째의 해
 - 2026년까지 300명의 회원 조직
 - I. 2024년 120명 신규 회원 조직: 25년 주 5일 1명, 3.5일 3명 유지, 미달 시 4인 체제 불가능
 - II. 2025년 100명 신규 회원 조직: 26년 주 5일 1명, 주 4일 3명 가능
 - III. 2026년 80명 신규 회원 조직: 27년 주 5일 4명 가능

3) 방향

그동안 후원 대상을 관계성을 중심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성소수자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변화를 위하여 행성인의 활동에 후원할 후원회원 조직이 필요. 후원이 곧 실천임을 피력.

성소수자 주요 의제 활동은 연대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임활동가들이 각 연대체에서 역할을 주요하게 맡고 있음에도 이것이 행성인의 활동으로 잘 보여지지 않고 단체 회원들에게도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역량 강화.

행성인 회원들이 단체 안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회원 역량 강화. 행성인 안에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1) 홍보 역량 강화

① 목적

- 단체 재정 안정성 강화
 - 상임활동가 4인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
 - 단체 사업비 확충
 - 공익 단체로 안정적 연락처 (공익 단체 등록 변경 추진으로 인한 후원인 감소 리스크 최소화)

② 계획

a. 행성인 활동 알리기

- 상임활동가 활동 알리기
- 팀활동, 회원 활동 알리기
- 행성인 단체 안내서 제작

b. 온라인 홍보 강화

- 홈페이지 개편, SNS 채널 활용 강화
- 뉴스레터, 웹진 기능 강화

c. 행사 참여/진행 시 회원 조직 목표

- 쿠키문화축제, 집회 등 행사 참여 시 신규 회원 조직
- 3.8 여성의날, 420, 노동자의날, 기후정의행진 등 연례 집회 참여 강화

(2) 활동 역량 강화

① 목적

- 회원 단체로서 활동 재생산 강화
 - 회원들의 활동 역량 강화
 - 행성인 멤버십 강화
 - 활동팀, 소모임 안정적인 운영

② 계획

a. 회원들의 활동 이해 증진

- 행성인 세바퀴 시즌 3 진행
- 홈페이지 내 단체 활동 및 정보 업데이트

b. 회원들의 활동 지원 증진

- 소모임 강화 및 독려를 위한 활동비 책정
- 행성인 캠프
 - 활동 회원들의 친목 도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1박 2일 인권 캠프 진행
 - 기금을 신청하여 진행 예정으로 기금 선정 어려울 시 무박 체육대회 진행

c. 회원 주도적인 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회원 주도의 주제모임 개설 및 이슈 토론의 자리 마련
 - N 개의 회원 모임: 회원들이 기획한 주제 모임 (예: 웹자보 만들기, 타로 이야기 등)
 - 연 2 회 회원들과 새로운 이슈 및 쟁점에 대한 토론의 자리 마련

의결 4. 2. 2024년 주요 활동 계획

4. 2. 1. 세.바.퀴. 시즌 3

1) 기획

(1) 기획 배경

회원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단체라는 성격은 행성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회원들이 함께 기획하고 실천해왔던 활동들은 캠페인이 되어 대중들에게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알리는 역할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재해 있는 이슈들, 활동 경험의 부족 등은 새로운 회원들이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문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된다면 보다 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성인에서는 『세.바.퀴.』, 행성인 아카데미 등을 진행해오며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활동 참여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2024년에도 그 일환으로 『세.바.퀴.』 시즌 3를 기획하였습니다. 『세.바.퀴.』 시즌 3를 통해 행성인 상임활동가들이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아왔던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지식과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여, 행성인 회원들과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인권 캠페이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2) 『세.바.퀴.』는?

『세.바.퀴.』는 ‘캠페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퀴어’의 줄임말로, 행성인 교육기획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세.바.퀴.』는 성소수자 인권 캠페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함께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캠페인의 이론부터 시작하여 캠페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원하는 캠페인을 설계해보고 직접 실행까지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되어, 2020년 시즌 1, 2022년 시즌 2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시작될 시즌 3는, 작년에 진행된 ‘행성인 아카데미’와 접목하여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기획 중입니다. 『세.바.퀴.』 시즌 1, 2에서는 캠페인 기획에 초점을 크게 맞춰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한 교육이 부족했던 한 편, 2023년 진행한 행성인 아카데미는 ‘성소수자 의제 강의의 비중이 너무 높다’, ‘캠페인 기획과 실행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바.퀴.』 시즌 3는 의제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기획 & 실행의 균형을 잡아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성소수자 인권 캠페이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련의 커리큘럼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2) 사업 개요

- (1) 시기: 3월 7일 ~ 4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씩 강의 진행, 5 ~ 6월 후속 캠페인 진행 (첫 날만 목요일 저녁 진행)
- (2) 대상: 행성인 회원 및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20여 명
- (3) 강의 주제: 캠페인 사례 소개, 캠페인 방법론, HIV/AIDS, 성소수자 노동권, 혼인평등, 트랜스 이슈, 캠페인 기획하기
- (4) 강의 형식: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관점을 가지고 의제를 이해하고 캠페인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획.
- (5) 예산: 카카오키가치 모금액 4,387,100원, 행성인 자체 예산 40만원

4. 2. 2. 행성인 일상 활동 홍보 강화 계획

1) 필요성

- 단체의 재정 및 활동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2024년 활동 목표와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일상 활동에 대한 홍보 방식을 체계화 하고, 이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회원과 주변 연대단위 및 활동가들을 넘어, 행성인 활동의 잠재적인 참여자 / 지지자 / 후원자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엘라이 시민들에게 단체의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1) 확장판 메일링 리뉴얼 및 홍보

2023년부터 주 1회 행성인 회원/후원회원에게 발송하는 뉴스레터 이외에 행성인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확장판 메일링’을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구독자 수가 저조한 상황임. 월간 활동 및 언론보도, 발표 성명 등을 단순 요약하여 수록한 형태로 발행해왔던 확장판 메일링을 리뉴얼, 홍보하여 보다 넓은 대중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SN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단체 SNS 운영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대한 내부 운영 방침(예: 단체 공식 계정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한 활동가 개인의 의견을 남기지 않는다 등)은 있으나, 단체의 활동 홍보와 관련한 SNS 운영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 활동과 관련한 사전 홍보에 비해 활동 자체에 대한 후속 홍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특히 상임활동가가 다양한 연대단위에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대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행성인 SNS 등으로는 적극적으로 외화되지 않아왔음.

- 각 활동의 유형별로 사전 홍보와 후속 홍보 등 일련의 홍보 과정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행성인의 다양한 활동이 너른 대중에게 보다 잘 알려지도록 하고자 함.

(3) 홈페이지 개편

행성인 활동 소개 및 홍보 채널로서 홈페이지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① 행성인 홈페이지 연혁 개편 및 팀과 소모임 활동 소개 강화

- 주요 목표: 행성인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단체에서 현재 투쟁하고 있는 사업들을 접하도록 하여 효용감을 높이고, 나아가 가입으로 유도
- 홈페이지 개편 TF팀을 구성하여 회원들과 함께 하며 단체의 목적과 방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환기
- 팀과 소모임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 활성화에 기여, 팀 역사나 활동을 통한 소속감/효용감 증대 (연혁에 팀 분류 기능 추가)
- 각 활동가의 활동 소개

② 성소수자 운동의 주요 의제를 알리는 섹션 홈페이지 추가

- 주요 목표: 성소수자나 의제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운동이 쌓아온 의제를 알려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 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나아가 각 의제와 관련한 정보를 접하는 통로로서 행성인 홈페이지를 경유하도록 하여 단체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③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등의 행성인 관련 정보 정정 및 소개 보완

- 성소수자 단체를 찾아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등의 사이트의 행성인 관련 정보를 정정하고 소개를 보완하고자 함.

④ 노동권 홈페이지의 꾸준한 유지보수, 접근성 강화

- 연대 단체의 연관 페이지에 역링크 요청을 추진
- 노동권 홈페이지 방문자 추이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광고 진행

(4) 단체 이용안내서 발간 및 배포

- 기존에 연간으로 발간해 온 활동보고서의 경우 해당 년도 이후 활용 가치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배포 되지 못하고 남은 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음. 한편, 리플렛과 연간보고서 외에 행성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잠재적인 회원/후원회원에게 행성인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며 단체를 소개할 발간 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 행성인의 잠재적인 회원/후원회원을 타겟으로 행성인의 비전과 역사, 활동 내용과 활동참여 방법 등을 소개하는 단체 이용안내서를 발간하여 단체의 일상 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기존에 발간해 왔던 연간 활동보고서의 경우 PDF로 발간하여 보고서 폐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연간 활동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간지를 제작하여 단체 이용안내서와 함께 배포, 연간보고서 실물 발간 중단으로 인한 제약을 완충할 계획임.

의결 4. 3. 단체기구 / 활동팀

4. 3. 1. 교육기획국 (담당: 오소리)

1) 2023년 활동 평가

(1) 한눈에 보는 2023년 교육기획국 활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14				8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					11				5			
아카데미			25							12		

- 각 상자칸 안 숫자는 참여인원을 뜻함.

(2) 평가

- 의무교육 및 신입회원모임 디딤돌은 계획에 맞추어 잘 진행되었다.
- 진행안을 체계화하여 교육국원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성인 아카데미 맞춤 프로그램을 잘 기획되고 진행하였으나, 후속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행성인 아카데미, 다시 모여랏! - 또 연결될 지도> 프로그램(11월 진행)을 통해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향후에도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참가자 평가 중 일부를 공유합니다.

● 신입회원 모임 디딤돌

- 행성인 역사!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들어서 좋았습니다.
- 교육이라고 그래서 수동적으로 듣기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본인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좋았어요.
-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긴장이 뒤로 갈수록 풀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의무교육

-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처음 보는 참신한 형식/내용이었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행성인 회원가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참여하는 자리였는데 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긴장했었지만 아이스브레이킹 시간도 가지면서 긴장감도 싹 녹여버릴 수 있었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 교육적인 내용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즐거워서 좋았습니다 ♡

2) 2024년 활동 방향 및 목표

(1) 2024년 활동 목적

-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2) 2024 년 활동 목표

- 세바퀴 시즌 3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 세바퀴 시즌 3 후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실천활동에 노력한다.
- 신입회원모임 디딤돌/의무교육을 계획에 맞추어 진행한다.
- 지난 시간동안 누적되었던 자료들을 정리한다.

(3) 세부 사업 계획

- 의무교육은 6 월 15 일 / 25 년 1 월 11 일에 진행한다.
- 행성인의 올해 활동 목표에 맞춰 신입회원들이 행성인 활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입회원모임 디딤돌의 횟수를 늘린다. (3 월 2 일 / 6 월 1 일 / 8 월 31 일 / 12 월 21 일 진행)
- 행성인 단체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교안을 검토하여 발전시킨다.
- 교육국원이라면 누구나 교육 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안을 포함하여 교육기획국 매뉴얼을 제작한다.
- 세바퀴 시즌 3 수강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을 마련한다.
- 성소수자 캠페인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한다.

4. 3. 2. 성평등위원회 (담당: 지오)

1) 2023 년 활동 평가

(1) 총평

2023 년에는 성평등위원회의 고민들을 정리하고(내부세미나와 웹진 기고), 타 단체 성평등위원회와 활동을 나누고(간담회 진행), 회원들과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문”을 풍부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계획한 것들은 다 실행하였습니다.

① 성평등위원회 역량 강화

7 월에는 타단체(녹색당 성평등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자 속해있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활동의 초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내부 세미나는 마인드맵을 통해 각자가 가진 고민을 자유롭게 나눈 후에 주제를 잡아서 하반기에 총 세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할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고, 지난 일들을 다시 돌아보는 작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들은 웹진 기고를 통해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② 평등한 활동문화 만들기

원래 계획은 신입 팀원, 소모임원의 적응을 돕는 활동 표준 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팀이나 소모임이 처한 상황이나 특성들이 다 달라서 “표준” 가이드 제작은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대신 새로운 회원이 궁금할 만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성인의 모든 모임 시작 전에 읽는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문’을 풍부하게 만들어 보고자, 약속문을 질문 형태로 바꾸고, 패들릿이란 인터넷 게시판에 회원들이 댓글을 달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딤돌이나 회원모임마다 의견을 받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1 월 회원모임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③ 교육

하반기에 행성인에서 팀장,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꿈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고민되거나 난감한 상황들이 있기 마련인데, 회의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이꿈이 교육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단체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특정 개인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디딤돌과 의무교육을 통해서도 행성인 회원들을 만나며 약속문 댓글달기 프로그램과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 세부 내용

계획	계획 대비 실행 내용
① 성평등위원회 역량 강화 - 내부 세미나 진행 - 타단체 성평등위원회 간담회 진행	- 상반기 매월 세미나 진행 - 타단체 성평등위원회와 간담회 진행
② 즐겁고 평등한 활동문화 만들기 - 팀 소모임 활동 표준 가이드 제작 - 약속 너머 프로그램 결과 회원 공유	- 새로운 회원이 활동하는데, 궁금한 점들을 모아 정리한 사이트를 만들. - 1 년간 총회, 회원모임을 통해 약속 너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취합된 회원 이야기를 나누는 회원 모임 진행
③ 교육 -연간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의무교육: 반성폭력필수교육 (연 2 회) 진행 - 디딤돌: 다양성체크프로그램 (연 3 회) 진행 - 이꿈이 교육 (연 1 회) 진행 - 약속너머 프로그램 (회원모임 시)진행

2) 2024 년 활동계획

(1) 방향

2024 년에는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행성인 성평등위원회의 고민을 내 외부와 적극적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성인 내부에서 회원들과 고민의 발걸음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성인 조직 문화의 기반을 튼튼히 해줄 규약들을 보다 교육적인 측면을 담아 보완하고 수정할 예정입니다. 행성인 내 사건 처리를 위한 대응 역량과 경험들을 쌓고 전파하는데 기존 규약은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직문화 사업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조직문화가 한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듯, 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사건 처리 역량이 조직적으로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씨앗이 있어야 틈틈이 시간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행성인 회원들과 행성인이 그간 쌓아온 고민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디딤돌과 의무교육 시간인데요. 새로운 디딤돌 프로그램과 반성폭력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회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행성인에 축적된 고민만큼 행성인으로 찾아오는 회원들도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서 자기 안에서 숙성된 고민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 년 1 월에 진행한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위한 약속 너머’ 프로그램에서 회원들과 나누는 이야기와 8 월 경 진행할 약속문 다시 쓰는 시간에 기초해 약속문을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금지 성격의 약속이 아니라, 공감대를 이루고 함께 실천하고 싶은 약속을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성인 외부의 단체들과 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고민을 함께 모아보려고 합니다. 2023 년에 타단위 성평등위원회 단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더 많은 단위들과 생각과 고민을 모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2024 년에는 그 시간을 실제로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민을 2025 년 성소수자 인권포럼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평등위원회는 계속해서 단체 내외부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환기하고 평등한 운동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목표를 가진 단위입니다. 성평등위원회에 함께 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개요	상세계획
① 행성인 내부 역량 강화	- 규약 보완,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 2024년 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약속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② 외부 단위와 성평등 고민 확장	- 외부 단위들과 성평등 고민 취합 - 2025년 성소수자 인권포럼 준비
③ 교육	- 반성폭력 교육, 디딤돌 프로그램 수정 - 의무교육: 반성폭력필수교육 (연 2회) 진행 - 디딤돌: 다양성체크프로그램 (연 4회) 진행 - 이꿈이 교육 (연 1회) 진행

(2) 2024년 타임 테이블

월	내용
2	총회, 신입회원 모집
3	디딤돌, 의무교육안 수정 / 이꿈이 교육
4	디딤돌, 의무교육안 수정
5	규약 보완, 사건처리 가이드 제작
6	규약 보완, 사건처리 가이드 제작

7	규약 보완, 사건처리 가이드 제작, 약속문 프로그램 준비
8	약속문 프로그램 준비, 약속문 프로그램 준비
9	인권포럼 준비
10	인권포럼 준비
11	인권포럼 준비
12	평가, 마무리
1	총회준비, 인권포럼 준비

4. 3. 3 사무국 (담당: 사무국장 오소리)

1) 2023년 보고사항

(1) 2022 활동보고서 발간

- 300부 인쇄
- 신입회원 가입 시 가입선물과 함께 배송, 회원모임 등 행사 때마다 배포.
- 재고가 존재하는 경우, ‘연간’ 보고서의 성격상 해가 지나면 소진하기 어려워짐. 이에 2023 활동보고서부터는 PDF 형식의 온라인 파일로만 발간하기로 논의함.

(2) 회원 모임

- 매월 새로운 주제의 기획을 가지고 회원모임이 진행되는 한편, 이슈가 있을 경우 시의성을 살린 기획으로 회원모임이 진행되기도 함.
- 사무국 외에도 운영위원(8월)이나 활동팀(11월)이 호스트가 되어 회원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등 회원 주도의 모임이 진행되기도 함.
-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월 빠지지 않고 정기 회원모임을 진행함. 특히 7월에는 외부 초청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에는 우천으로 인해 모임이 취소될 뻔했으나 긴급 논의를 통해 기획을 변경하여 회원모임을 진행하기도 함.
- 6월과 11월 모임을 제외하고는 주제와 상관없이 고른 참여도를 보임. 연인원 164명 참여.

※참조 - 총회 이후 각 월별 회원모임 주제와 참여자 수

3월 - 보깅댄스 워크샵 (7명)

4월 - 청소년 성소수자의 든든한 동료가 되자! <무지개 꽃이 피었습니다> 보드게임 (13명)

5월 - 행성인 이사가자! (12명)

6월 - 동성혼 법제화 법안 최초 발의! - “함께 만드는 혼인평등” (19명)

7 월 - 학교와 성소수자 (14 명)

8 월 - 인공지능 시대, 성소수자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10 명)

9 월 - 행성인 이사간다! (9 명)

10 월 - 행성인 밤소풍 -> 우천으로 인해 실내 모임으로 대체 (12 명)

11 월 - 전지적 트젠 시점 (19 명)

12 월 - 2023 행성인 송년회 재밌어, 보자 (49 명)

(3) 회원 관리

① 일시 관리

- 10년 이상 장기 후원자 및 25주년 고액 후원자 후원 감사 선물 증정 (22년 12월 - 23년 2월 진행)

- 6개월 이상 장기미납자 정리: 총 43명 중 후원재개 12명, 해지요청 3명, 일시정지 4명, 보류 2명, 임의해지처리 22명

② 정기 관리

- 생일 축하 문자 발송

- 매월 신입회원 환영 선물 발송

- 회원가입 한 마디 웹진 게재

(4) 기타 일상 업무

① 뉴스레터 발행

a. 주간 뉴스레터

- 매주 화요일, 총 47 회 발행
- 구독자 904 명 (1 월 16 일 기준)
- 평균 오픈율 28.9%
- 행성인 회원 대상 내부 메일링으로서 회원들에게 행성인 활동과 소식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연말연초, 명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발행하여 정기성을 잘 살림.

b. 월간 뉴스레터

- 주간 뉴스레터는 내부용이고, SNS 만으로는 행성인 활동과 소식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어 2023 년 2 월부터 새롭게 시행.
- 지난 한 달 간의 행성인 활동과 소식, 그리고 향후 활동 소식을 담음.
-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총 11 회 발행
- 월별 행성인 활동과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 페이지(<https://lgbtaction.stibee.com>) 에서 지난 소식을 살펴볼 수 있어 아카이빙 기능을 하기도 함. 하지만 구독자가 저조하여, 외부에 행성인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자 했던 원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함. 이는 월간 뉴스레터의 콘텐츠가 ‘행성인 웹진 등 다른 채널과의 차별성이 없어 구독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자체적 평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24 년에는 개편하여 발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음.

② 상담

- 진행 상담 건: 13 건 +a
- 21 년도부터 상담 기록표를 만들어 상담내용을 기록 중이나 단순 정보 문의 등은 기록하지 않아 상담 건으로 카운팅 하지 않고 있음. 그 외에도 간혹 기록 누락이 발생하기도 함.

③ 대관

- 2023년 대관 현황: 32건 (연대체, 다음의 대관은 카운트하지 않음)
- 이사 이후(23년 10월)부터는 소회의실 부재로 인해 대관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함.

2) 2023년 평가

2023년은 4인 체제의 사무국 운영이 2년차를 맞이한 해였습니다. 1년차가 늘어난 인원에 맞춰 새로운 영역으로 연대활동을 확장하고 회원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하지 못하던 새로운 시도들을 시작한 해였다면, 2년차는 1년차에 새롭게 시도한 활동들이 잘 정착하도록 노력한 해였습니다.

일상활동 외에 작년 상반기에는 행성인의 중점 활동 중 하나였던 행성인 아카데미에 집중하였습니다. 행성인 아카데미에서 다룬 각 의제에 대해 연대체 활동을 지속해온 사무국 활동가들이 직접 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여하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 편, 아카데미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회원 조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한 편 하반기에는 이사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사 기금 마련을 위해 모금 활동에 힘썼고, 상임활동가 4명이 부동산 물색, 자료 정리, 인테리어 공사, 정리정돈 등 각각 주 역할을 담당하여 빈틈없이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2024년 계획

2024년 행성인의 활동 목표는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이에 맞춰 제시된 과제 중 하나는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행성인 SNS는 사전 공지 위주로 운영되며 활동 후기를 전달하는데 있어 부족하였고, 상임활동가들의 연대체 활동에 대한 외화가 미흡했습니다. 사무국 활동가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외부 연대활동과 행성인 회원 활동을 연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일단 상임활동가들의 활동을 제대로 알리는 일일 것입니다. 올해에는 SNS 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월간 뉴

스레터 개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에 힘쓸 계획입니다. 일상 활동 홍보와 더불어 행성인이란 단체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개편, 단체 안내서를 발간하여 행성인 활동에 대한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 편 행성인은 CMS 확충을 시급한 문제로 당면하였습니다. 작년 이사 기금 마련 모금은 성공적이었지만 해당 모금액은 이사 제반 비용으로 모두 소진하였고, 작년에 활동비 일부(매월 100만원)를 지원받던 다음세대재단 기금도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지난 1년 간 CMS 회원 수의 변동은 없는 상황으로, 재정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한 홍보 역량 강화가 CMS 확충을 위한 활동 계획의 일환이지만, 이와 더불어 오프라인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직접적인 CMS 조직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행성인 사무국은 기존 운영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주 5일 근무 3명, 주 2.5일 근무 1명 체제에서 2024년 주 5일 근무 1명, 주 3.5일 근무 3명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의 전체 근무일이 확연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일상 사업에 구멍이 생기거나 사무실 관리가 미흡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임활동가 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외부 일정, 연대 활동, 휴가 사용 등의 일정을 잘 조율해가며 최대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2024년에는 세.바.퀴. 시즌 3, 행성인 캠프, 공익단체 등록 준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연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일정을 잘 점검하며 사업들이 제 시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들과 여러가지 변화들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도움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3. 4. 미디어활동 TF팀 (담당: 웅)

1) 2023 활동 평가

- 개근 발행: 구멍 없이 매월 마지막일 웹진을 발행했습니다(박수)
- 2022년 평균 방문자 수가 6600여 회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평균 1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성소수자 인권이슈를 찾을때 행성인 웹진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웹진 기획 재개 이후 1인 편집자 체제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웹진 자체가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무엇보다 주변에 필자들이 많아지면서 상쇄가 되기도 합니다.
- **활동팀(원)의 참여 증가:** 2편 이상 꾸준히 글을 쓰는 필자회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은 열의 있는 소모임이나 활동팀에서 활동하는 이들인데, 그때그때 이슈나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나 활동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정리해서 웹진에 올립니다. 필자들은 더러 자발적으로 웹진 기고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집필에 열의를 보이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팀과의 소통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현상입니다. 활동에서 나눈 이야기와 추가적인 고민들을 글로 나누는 것을 연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팀별로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글청탁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필자와 작은 토론부터 상호 피드백까지 이뤄지는 과정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 매월 원고를 기획하면서 회원 동정을 살피고 소통하게 되는 것또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웹진을 담당하면서 일부러 회원 안부를 묻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웹진 작업은 서로 관심사와 안부를 묻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 **상임활동가와 운영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 웹진을 통해 자기 활동을 회원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나누고 이후에도 계속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행성인에서 단체운영 및 대외활동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국+운영위원 활동가들의 웹진 참여가 미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무국의 경우 사무국장의 활동스케치를 제외하면 상반기 이후 웹진 활동이 없다시피 합니다. 회원들과 활동 환류를 위해 활동 기록을 남기는

일은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 **미디어 비평의 아쉬움:**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미디어 비평이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적재적소에 이슈를 다루는 미디어의 태도와 이슈 자체에 대한 단체와 활동가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활동을 보이고 호응을 얻는 데 주효하지만, 회원들의 활동관심사를 담는데 주력하는 웹진 성격상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체 논평이나 성명은 과정이 무겁고 글 또한 단체 대표성을 띠는 점에 부담이 있지만, 그때그때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을 남긴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오프라인 모임 부족:** 올해는 미디어TF에서 자체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HIV/AIDS인권팀과 아무PT대잔치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도였는데,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필진을 만나는 자리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 **행성인 미디어 활동단위로서 운영 정착:** 미디어TF는 2020년 총회를 기점으로 웹진팀 해산 이후 2021년 신설한 기구입니다. 웹진 기획 재개 이후 1인 편집자 체제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웹진 자체가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무엇보다 주변에 필자들이 많아지면서 상쇄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미디어TF는 당시 활동 환류와 미디어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임시적으로 구성한 기구로서 올해로 만 3년을 채우게 됩니다. 향후 안정적인 웹진 운영과 일상의 미디어 모니터링과 비평, 회원 소통 등의 활동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TF체제에서 벗어난 안정적 단위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 웹진은 기획력을 높이기보다는 연중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그때그때 소식을 전하고 회원들의 문장을 나누는 식으로 기능을 지속+모색해가고 있습니다. 따로 고료가 책정되거나 높은 밀도의 원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볍게 가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귀여로운 본인의 일상과 관심사를 독자들과 남기고 싶은 분들은 미디어TF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1) 월간방문자

월	2023 방문자	2022 방문자수
2	11246	4188
3	12182	4528

4	7040	4271
5	9180	4696
6	10120	7930
7	9044	7851
8	8820	7044
9	10813	9213
10	10392	8575
11	9489	7289
12	13223	7316
1		6492
평균	10140	6616

(2) 2편 이상 기고한 필자

- 2편: eppe, 김민지, 무나, 미역, 소하, 연수, 영민, 창현
- 4편: Rubber Lee (짤막연재), 소연
- 5편: 지오(색다른 의원 인터뷰 포함)
- 6편: 미디어TF (남웅)
- 10편: 여기동(레인보우 패밀리 매월 연재)
- 12편: 오소리(월간 활동스케치 9편 포함)
- 14편: 남웅(인터뷰 2편(이안/지운, 체리보이), POP간담회 포함)

- 매월 연재하는 여기동 필자와 사무국 및 미디어TF 활동가를 제외하고, 2,3편 집필 그룹에 필진 풀이 늘어났습니다.

- 22년 사무국에 편중되거나 1회만 집필한 회원이 편중된 것과는 달라진 점입니다.

- 기획 원고의 정례화: 미디어TF에서 주제별로 기획한 원고로 다른 활동팀이나 활동단위와 함께 논의를 거쳐 원고를 집필하고 발행했습니다.

2) 2024 활동 계획

- 오프라인 모임 반기별 진행: 상하반기별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성소수자 운동과 미디어 동향을 나누고, 웹진에 대한 피드백을 나눕니다.

- 회원 에세이 지속: 활동과 일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행성인 회원들이 웹진에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더불어 단기 연재 등을 제안하여 회원들이 집필 뿐 아니라 기획할 수 있는 경험도 늘려줍니다.

- 사무국 활동가 활동노트 연재 계획: 연대활동과 각종 회원프로그램, 발언과 집필 등 종횡무진 활동하는 사무국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월간 연재 세션을 신설합니다.

- 포스트 미디어TF 활동 준비하기: 내년부터 단체의 안정적인 웹진발행과 회원 소통, 미디어 활동을 위해 미디어TF를 비롯한 단체의 미디어 활동을 정비 및 정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합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 아래 적합한 운영 모델과 활동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내년 총회때 보다 일상사업에 최적화한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니다.

4. 3. 5. HIV/AIDS인권팀 (담당: 웅)

1) 2023 활동

	2	3	4	5	6	7	8	9	10	11	12
행성인 활동		아카데미 3.25 살롱 드 에이즈 속성편			서울퀴퍼				행성인 이사		송년회 올해의 팀워크 상 수상
책읽기 모임		3.15 함께 읽는 섹스 1: 『보행연습』		5.24 함께 읽는 섹스 2: 『섹스할 권리』			8.30 함께 읽는 섹스 3: 『캠섹스 보고서』				
HIV/ AIDS 인권팀 회원활 동				5.12 살롱 드 에이즈 : 퀴어 섹슈얼리티 와 HIV/AIDS		7.21 여름특집 행성인 HIV/AI DS 인권 팀 아무 PT 대잔치					12.19 살롱 드 에이즈 겨울편 : Shame on you
퀴퍼					6.30 길리 어드 규탄 기자 회견	7.1 서울퀴퍼 초국적 제약회사 규탄행진					
에이즈의 날									10.26 19 조 현재 위헌판 결		12.6 HIV/AI DS 인권팀 X 연구모 임 POP 간담회

2) 2023 웹진 집필

(1) 11월호

- 행성인 HIV/AIDS 인권팀, 세계 에이즈의 날,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에 부쳐 - 실천과 배움, 만남과 돌봄의 HIV/AIDS 인권운동
- eppe, [회원 에세이] 퀴어는 부끄러운 게 아냐 - 내 안의 수치심 넘어서기

(2) 8-10월호

- Rubber Lee, [짤막 연재] 페티쉬의 길 (fetish Road) 3회 연재

(3) 8월호

- 마루, [회원에세이] 괴물을 좋아하는 게이 이야기
- 남웅, [회원에세이] 그래도 BDSM은 폭력적이지 않나요?

(4) 5월호

- 민지, [독후감] 취향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혹시 내 취향 뺏겼나요? - 『섹스할 권리』를 읽고

3) 2023 활동 평가

- HIV/AIDS 인권팀은 2022년부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퀴어 섹스와 HIV/AIDS에 접근중입니다. 주로 MSM/게이 이슈로 부각되었던 HIV/AIDS에 대해 좀 더 많은 퀴어들이 우리의 이슈로 이해하기 위해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를 고민했습니다. 인권팀은 퀴어 커뮤니티에서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으로 소모되거나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하는 맥락 위에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여 퀴어 섹스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중지를 모았고, 그것이 2023년에는 BDSM이나 성적 페티시 등 최근 눈에 띄는 이슈에 주목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러한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는 퀴어 섹스가 수입된 문화를 상당부분 참조하지만 현장에서는 섬세한 약속과 질서가 고안되고 있음을, 그것이 어떻게 취약함을 만들면서도 취약함에 대처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퀴어커뮤니티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위계를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어떤 변칙들이 발명되는지, 규범적인 관계를 탈구하는 만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권단체에서 수면 위에 오르기 어려운 이야기를 회원들과 함께 강약을 조절하며 나누는 시도는 행성인 HIV/AIDS 인권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퀴어 섹스에 집중하여 이야기하다보니 HIV/AIDS 에 주목하는데 소원해진 것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취약함 속에 콘돔 사용을 놓치거나 자기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HIV 에 노출되기 쉽다는 추상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 쉬웠는데, 새로 참여하는 팀원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HIV/AIDS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 보다 많은 이들이 HIV/AIDS 와 그에 따르는 성적 권리와 커뮤니티의 섹스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HIV/AIDS 를 비롯하여 그와 퀴어섹스로 연결되는 당대 이슈와 연결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4) 2024 활동 계획

(1) 방향

- 2023 년 논의한 의약품, 약물, 퀴어 섹스문화와 관련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 팀원들의 관심사와 운동 방향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퀴어 섹스 실천의 다양한 맥락들 : HIV/AIDS 를 비롯한 질병과 손상을 퀴어 섹스의 경향들 속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봅니다.
- 팀원 뿐 아니라 HIV/AIDS 인권의제 및 HIV 감염인/퀴어의 성적 권리에 관심있는 이들에게도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 회원들에게 HIV/AIDS 이슈와 활동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2) 활동 계획

- 3 월 중 최근 출간한 서보경의 『휘말린 날들』 북토크를 비롯하여 의제 관련 도서 및 연구논문 읽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 상반기 중 팀원/회원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행성인 캠페인 프로그램에 맞춰 HIV/AIDS 인권 의제와 이슈 등을 교육합니다.
- 에이즈와 성병 관련 워크숍 <성교육은 따분한데 섹스는 하고싶어>(가) : 에이즈보다 노출되기 쉬운 성병, 세이프섹스와 위험으로부터 회피의 방향과 다른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 23 년 아무 PT 대잔치 후속 프로그램으로 BDSM 당사자 심화 인터뷰 및 간담회를, POP 간담회 후속 프로그램으로 약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일상 공부 및 모니터링: 제약회사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19 조 관련하여 현재 판결문을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 HIV/AIDS인권주간 중장년 PL 토크쇼 계획: 2013년 회원모임에 트랜스와 묶어서 한번 진행한 바 있는 프로그램으로, 12 월 1 일 에이즈 인권주간에 맞춰 나이듦과 돌봄, 커뮤니티와 의료차별, 성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눕니다.

(3) 타임테이블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연간 활동		여성의 날/ TDoV	행성인 추모주간	아이다호	서울퀴퍼					TDoR	HIV/AIDS 의 날	
회원교육		서보경 『휘말린 날들』 북토크		회원대상 교육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퀴어 섹슈얼리티 와 HIV/AIDS	심층 이야기나눔_ 19 조 판결문 읽기, BDSM 간담회, 약물세미나 등 (연중)																							
제약회사 대응	초국적 제약회사 모니터링 및 세미나				퀴퍼 캠페인																			
에이즈의날																		HIV/AIDS 인권주간 중장년 PL 토크쇼(가)						

4. 3. 6. 성소수자 노동권팀 (팀장: 슈미)

1) 2023년에 진행된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

	3	4	5	6	7	8	9	10	11	12	1
노동절 성명 함께쓰기											
퀴어 노동자를 위한 아주 유용한 노동법 강의 (일명: 퀴노아)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연대 활동											
노동권팀 모임											

2) 2023년의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2년의 노동권팀은 다시 활기로 채워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작년에 진행된 총회에서 2023년에는 이러한 활기를 잘 모아 노동권팀의 색깔이 듬뿍 드러난 다채로운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그 포부대로 노동권팀은 노동과 관련된 뉴스의 대부분이 희망이 없는 2023년에도 때론 웃고, 때론 분노하며 달력을 차곡차곡 채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노동권팀은 노동절 성명을 씁니다. 노동절 성명은 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흐름과 성소수자 노동권을 엮는 글로 노동권팀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는 글이기에 각별히 중요합니다. 올해는 노동절 성명 함께 쓰기 위한 모임을 두차례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함께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권팀 내부적으로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후에 다른 성명을 쓰는데 이때의 경험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다함께 메시지를 남긴다는 의미가 좋았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에, 노동권팀에서는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 퀴어동네를 초청하여 2주 동안 노동법 연속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연속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참여자가 자신이 일터에서 겪은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소수자 노동자를 지금의 노동 흐름과 엮어 우리의 언어로 그려내는 활동으로 성소수자 노동권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2020년에 진행된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가 ‘나는 일터에서 커밍아웃하지 않았지만 그게 침묵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야. 나만의 방식으로 일터에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가 주요한 메시지였다면, 올해는 ‘노동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접점이 점점 사라지는 수많은 성소수자 노동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궁금증에서 인터뷰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노동권팀은 알찬 팀원들과 목직한 활동을 했습니다. 목직한 활동을 하는 시기일수록 에너지를 조절하며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 에너지를 잘 조절하며 모두에게 의미가 남는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2024년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을 계획하며

(1) 2024년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 목표

- 행성인과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 다양한 성소수자 노동자 만나기
-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잘 마무리하기

(2) 2024년 성소수자 노동권팀 활동 계획

①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2023년 여름에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5명의 성소수자 노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의미있게 기록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고민하며 차분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봄까지 마무리하여 행성인 회원들과 의미를 차차 나누려고 합니다.

② 노동절 성명 함께 쓰기

노동절 성명을 함께 쓰기 위해서는 노동과 관련된 중요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뾰족한 관점과 더불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권팀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③ 성소수자 노동자로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구성하기

성소수자 노동자는 일터에서 애매하거나 부당한 순간을 마주해도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권팀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노동권팀은 자신이 일터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성소수자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형태로 성소수자 노동자를 만나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모으고, 함께 의미를 나눌 계획입니다.

④ 연대 활동

노동권팀은 연대 활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다양한 투쟁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단한 연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연대 활동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부터 어떤 연대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노동권팀의 속도에 맞게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4. 3. 7.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팀장: 무나)

1) 2023 활동과 이슈들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 활동		여성의 날/ TDoV	행성인 추모주간	아이다호	서울퀴퍼					TDoR	HIV/AIDS 의 날
연중 팀활동		TDoV 성명		물마실 권리 리유저블 컵 제작			젠더사랑방 : 아플때 살아남기			회원모임 : 전지적 트젠시점	

- [3월 트랜스 추모주간 성명 작성 \[성명\] 삶이 투쟁이 되지 않기를 -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여](#)

- 3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오픈마이크(무행): 무나 공연
- 5월 아이다호: 무나 기획단 참여, 사회, 공연. 지국 공연
- 5월 아카데미: 논바이너리 가시화 캠페인- 소연, 무나 참여
- 5월 물마실권리 리유저블 컵 제작
- 6월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사이클선수 나화린
- 7월 행성인+트랜스피플+전장연+노들야학 서울퀴어퍼레이드 차량 준비 및 진행 (레인보우라이더스 (소하), 메인무대(지국))
-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OMR 성별표기 관련 인권위 진정(무행)
- 8월 '젠더사랑방: 아플때 살아남기' 진행

- 9월 트랜스젠더 난민 티아라의 환승파티
- 9월 비수술 젠더 이슈(나 선수 관련) 웹진원고 3편 기고
- 11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 트랜스젠더 성별 인정 기준 마련 법안 발의 예정 (연수 발언)
- 11월 회원모임 ‘전지적 트젠 시점’
- 11월 트랜스추모주간 웹진 원고 2편 기고
- 11월 트랜스추모주간 집회 ‘단결 트젠, 용산은 젠더땅’ 집회와 연계행사 상영회
- 12월 풍자 MBC 예능 신인상

2) 웹진 기고

- [\[2월 활동 후기\] 제 15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후기 : 트랜스젠더퀴어의 언어를 찾아서](#) (무나)
- [\[3월 회원 에세이\] 편안한 일상이란 어떤 걸까?](#) (종우)
- [\[7월 회원 에세이\] “근데, 거기 가면 덜 외로워.”](#) (무나)
- [\[8월 회원에세이\] 논바이너리 걸프렌드](#) (미역)
- [\[9월 기획\] 사람마다 원하는 모습은 다르니까](#) (소하)
- [\[9월 기획\] 트랜스젠더가 바꾸는 것](#) (연수)
- [\[9월 기획\] 홀로 서 있을 당신에게 : “저는 논바이너리, 비수술 트랜스젠더입니다.”](#) (무나)
- [\[9월 회원에세이\] 섹스를 하면 사랑이 나와](#) (미역)
- [\[11월 TDOR 특집\] 그날 죽지 못한 나는](#) (연수)
- [\[11월 TDOR 특집\] 1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 (소하)

3) 2023 활동 평가

- 팀원들이 활동 외에도 일상에서 소통하고 활동하면서도 정보를 공유하며 투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팀원에게 팀 활동 기본 설명과 가이드뿐 아니라, 활동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과 강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상반기 사무국과 소통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으나, 하반기에 담당자가 추가되면서 소통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OMR 답안지 성별기재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집단진정을 했던 경우와 같이, 외부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연대활동의 대응을 공유받거나 소통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전반적으로 팀원들의 사업 제안은 적지 않았지만, 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활동한 팀원들의 구성이 달랐는데, 실행을 위한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실무를 분담해도 생업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클 것입니다.
- 단적으로 연초 포괄적 성교육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자는 제안과 초벌 논의가 있었지만 3월 이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카드뉴스 제작도 아이디어가 상반기동안 나왔는데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 그럼에도 ‘젠더사랑방’과 ‘전지적 트젠시점’ 등 팀의 방향과 규모에 맞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상반기 진행한 ‘젠더사랑방’은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성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당사자의 상황과 감수성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 ‘11월 회원모임: 전지적트젠시점’은 회원들이 트랜스 의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생각보다 높았다는걸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과 강의의 구성이 단기속성의 알찬 패키지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획을 보강해서 프로젝트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연례 기념일에 드는 품을 조율하면서 운동을 장기적으로 보고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활동 논의에 힘씁시다.

4) 2024 활동 계획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												
2/신입팀원 ot												
3/월별 이야기나눔			트랜스 가시화주간	행성인 추모주간	아이다호	서울퀴퍼					트랜스 추모주간	
4/컨텐츠 제작 및 배포												
5/상반기 워크샵												
6/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7/ 연말 워크샵												

- 트랜스 운동 가시화가 중요한 한 해 입니다. 하리수나 풍자와 같은 연예인이나 몇몇 인플루언서들을 지지하더라도, 그들이 과대표되지 않도록 대중에게 트랜스 인식을 넓힐 때입니다.

- 타깃 별 활동 제안: 관심 있는 (비)당사자의 심도있는 이해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관심도 낮고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한 이해를 다변화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트랜스 당사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트랜스 관련 지식과 인권이슈를 분배해서 업데이트하고 공유합니다.

- 연초 신입팀원과 행성인 회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트랜스팀 디딤돌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가볍게 기획할 계획입니다.

- 팀활동을 바깥에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일상적으로는 신입회원모임 디딤돌과 회원모임 등에 팀원들이 잘 참여해서 팀 활동을 설명하고 팀원을 조직합니다.

- 트랜스 운동 가시화의 일환으로 콘텐츠 제작 및 배포와 더불어 그에 기반이 되는 내부 논의와 이야기 생산을 확대합니다.
- 연중으로 매월 주제와 이슈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나 웹진 원고 등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 제작은 그때그때 판단하기로 해요. 인권과 일상이슈 외에도 미디어, 게임, 문학 등 관심사를 이야기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 2024년 트랜스팀 담당 사무국 활동가: 오소리, (남웅은 부수적으로 참여합니다)
- 기타: 트랜스팀원들을 중심으로 트랜스 페미니즘 소모임을 개설했습니다. 책읽기 모임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트랜스정체성과 페미니즘이 불화하는 지점을 살피며 여성운동은 왜 트랜스를 포함하지 못/안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의결 안건 5

2024년 예산 의결의 건

의결 5. 2024년 예산안

1) 예산안

(1) 수입

관	항	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2024 예산
후원수입	정기회비후원금	CMS	117,250,000	109,322,600	120,720,000
		입금	500,000	510,000	500,000
	후원금	비정기후원	6,000,000	13,205,528	7,000,000
		특별후원	0	402,660	-
	후원수입 소계			123,750,000	123,440,788
사업수입	일반사업	판매	4,000,000	5,394,539	6,000,000
		강연	500,000	1,244,800	2,000,000
		대관, 인세	200,000	485,500	-
		참가비	1,500,000	1,710,000	2,250,000
	특별사업	기금사업	30,000,000	29,650,000	4,387,100
		재정사업	25,000,000	37,920,370	-
	사업수입 소계			61,200,000	76,405,209
기타수입	이자수입	이자	10,000	22,263	10,000
	기타수입	기타	-	2,240	-
		사무실 공동사용료	1,200,000	1,050,000	3,000,000
	기타수입 소계			1,210,000	1,074,503
환급			200,000	2,518,400	0
수입 합계			186,360,000	203,438,900	145,867,100
적립금			11,000,000	11,004,602	-
이월금			25,131,180	25,131,180	20,930,399
합 계			222,491,180	239,574,682	166,797,499

① 후원수입

a. 정기회비후원금

- CMS: 총회 이후 3 월부터 매월 12 명(인당 1 만 2 천원 회비 약정 기준 14 만 4 천원)씩 증가하여 24 년 12 월 CMS 입금액이 1,084 만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b. 후원금

- 비정기후원: 23 년에는 큰 규모의 비정기후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여 23 년 결산에 비해 축소 편성함.

② 사업수입

a. 일반사업

- 판매: 신규 굿즈 제작을 고려하여 확대 편성.
- 강연: 일터가이드북을 활용한 강연을 많이 다닐 것을 고려하여 확대 편성.
- 대관, 인세: 이사 이후 정기 대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으로 대관, 인세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항목은 없애지 않았음.
- 참가비: 송년회 참가비와 더불어 24 년 특별 사업인 행성인 캠프 참가비를 고려하여 확대 편성.

b. 특별사업

- 기금사업: 23 년에 모금한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액임.
- 재정사업: 24 년에는 특별한 재정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CMS 확충에 집중할 계획임.

③ 기타

- 사무실 공동사용료: 기존 '임대료' 라는 목 이름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무실 공동사용료'로 변경. 모두의결혼 상임활동가 1 명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모두의결혼에서 행정인으로 매월 25 만원씩 납부 중.
- 적립금: 적립금은 23 년에 모두 소진하였음.

(2) 지출

운영비					
관	항	목	2023 년 예산	2023 년 결산	2024 년 예산
요 요 비	인 건 비	상근	41,847,920	41,605,780	20,833,760
		반상근	24,240,000	25,118,980	48,116,880
		복리후생비	2,880,000	2,880,000	5,520,000
		복리후생비_동행	480,000	480,000	480,000
		근속수당	1,440,000	1,440,000	1,790,000
		직책수당_운영위원장	1,800,000	1,800,000	1,250,000
		직책수당_사무국장	1,200,000	1,200,000	1,200,000
		퇴직적립금	6,300,000	6,300,000	1,260,000
		상여금	3,500,000	3,500,000	4,000,000
		기본급 소급	400,000	400,000	-
		세금	650,000	666,100	670,000
		4 대보험	15,500,000	15,029,960	15,290,000
		인건비 소계	100,237,920	100,420,820	100,410,640
	관 리 비	임대료	24,000,000	24,550,000	24,600,000
		정수기 -> 렌탈과 통합	450,000	466,080	-
		전기 -> 공과금	1,500,000	1,763,000	1,560,000
		복합기 임대 -> 렌탈	1,080,000	1,054,000	1,488,000
		통신	1,600,000	1,632,629	1,560,000
		관리비 소계	28,630,000	29,465,709	29,208,000
	사 무 비	발송	100,000	82,460	100,000
		운반 -> 교통과 통합	100,000	36,000	-
		교통	200,000	-	200,000
		홍보	500,000	978,650	800,000

	수수료	30,000	4,400	10,000
	사무비 소계	930,000	1,101,510	1,110,000
물 건 비	비품	400,000	374,900	300,000
	소모품	400,000	234,900	300,000
	자료구입	100,000	31,100	100,000
	물건비 소계	900,000	640,900	700,000
운영비 소계		130,697,920	131,628,939	131,428,640

① 운영비

a. 인건비

- 상근: 기본급 178만원. 24년 최저임금 2,060,740원에 맞춰 기본급 2만원 인상. 3~6월 기본급 중 50만원은 카카오페이가치 기금으로 지급.

※ 기본급 178만 + 복리후생비 12만원 + 직책수당 10만원 + 근속수당 7만원 = 207만원.

- 반상근: 주 3.5일 최저임금 1,439,560원에 맞춰 기본급은 137만원으로 책정.

※ 기본급 137만원 + 복리후생비 12만원 = 149만원. (근속수당 개별 지급)

- 직책수당_운영위원장: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축.

- 퇴직적립금: 인건비 절감을 위해 2월까지만 적립. 1인의 퇴직적립금은 확보한 상태임.

- 상여금: 추석, 설 각각 50만원 * 4인.

- 기본급 소급: 1월부터 24년 최저임금 반영하여 지급함에 따라 별도 예산 없음.

- 세금: 원천세, 연말정산 비용. 거의 변동 없음.

- 4대보험: 장기요양보험율 1% 인상 외에 4대보험 요율 동결로 인해 거의 변동 없음.

b. 관리비

- 임대료: 이사 후 월세 200 만원, 관리비 5 만원으로 23 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23 년에는 200 만원)
- 공과금: 기존에는 수도세가 별도로 지출되지 않았으나 이사 후 수도세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면서 전기세와 수도세를 공과금 항목으로 통합 편성함. 이사 후 한 층에서만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세 절감될 것으로 예상. 수도세와 합쳐 매월 약 13 만원 지출 예상.
- 렌탈: 이사 후 1 층 공간인 걸 감안하여 보안상 외부 CCTV 를 설치할 예정임. 관리비 항목이 많아짐에 따라 정수기, 복합기, CCTV 항목을 통합 편성함. 매월 복합기 77,000 원, 정수기 34,900 원, CCTV 13,200 원. 복합기와 정수기를 통합 편성하게 되면서 예산상 확대되었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 통신: 매월 전화+인터넷 약 84,000 원, 홈페이지 관리/호스팅 21,100 원, ZOOM 약 25,000 원
= 매월 약 13 만원.

c. 사무비

- 교통: 운반, 교통 항목 구분이 잘 안되어 항목 통폐합.
- 홍보: 24 년 CMS 확충 사업 고려하여 확대 편성.

d. 물건비

- 결산에 맞춰 소액 축소 편성.

사업비					
관	항	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사업비	팀별사업 및 운영회의	워크샵 및 활동지원	1,200,000	435,000	1,000,000
		조정위원회	300,000	73,000	200,000
		운영회의	600,000	775,760	500,000
		사무국	400,000	80,000	250,000
		교육기획국	300,000	109,800	250,000
		성평등위원회	300,000	110,600	250,000
		성소수자노동권팀	600,000	449,928	500,000
		HIV/AIDS 인권팀	600,000	524,700	-
		에이즈 기금	800,000	-	800,000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600,000	227,950	500,000
		미디어 TF 팀	600,000	111,900	250,000
		홈페이지 개편 TF 팀	-	-	700,000
		소계	6,300,000	2,898,638	5,200,000
	기획사업	노동권 사업	2,000,000	1,130,690	900,000
		육우당 추모 -> 삭제	1,000,000	1,013,000	-
		축제-퍼레이드	3,000,000	3,024,050	3,000,000
		기념품 제작	500,000	594,000	2,000,000
		연간보고서 -> 단체안내서	1,000,000	1,065,000	1,300,000
		소계	7,500,000	6,826,740	7,200,000
	회원사업	회원관리	500,000	371,800	500,000
		회원모임/교육	1,000,000	480,430	500,000
		총회	1,000,000	523,000	600,000
		송년회	2,000,000	1,986,430	2,000,000
		소계	4,500,000	3,361,660	3,600,000
	연대사업	활동비	500,000	325,750	300,000
		분담금	1,500,000	1,209,667	1,200,000
		후원	1,000,000	1,350,000	1,000,000
		소계	3,000,000	2,885,417	2,500,000
	특별사업	아카데미 -> 세바퀴	1,500,000	1,837,100	400,000
		캠페인 -> 행성인 캠프	600,000	179,300	1,000,000
		기금사업	30,000,000	30,112,000	4,387,100
		재정사업	20,000,000	37,760,389	-
		소계	52,100,000	69,888,789	5,787,100
	사업비 소계			73,400,000	85,861,244

② 사업비

a. 팀별사업 및 운영회의

- 워크샵 및 활동지원: LT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항목이었으나 24년에는 LT 대신 행성인 캠프를 기획하고 ‘행성인 캠프’ 지출 항목은 별도 편성(특별사업)하여 예산 사용처가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24년부터 소모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모임 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고, 이를 워크샵 및 활동지원 항목에서 지출하기로 함. 이에 따라 23년 결산보다 확대 편성함.
- 팀별: 단체 건축 재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축소 편성함. HIV/AIDS 인권팀의 경우 장기적으로 미사용 되고 있던 에이즈 기금 활용을 위해 팀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에이즈 기금에서 팀 활동비 사용하도록 편성함.

b. 기획사업

- 노동권 사업: 노동권 기금 200 만원 중 작년에 성소수자 노동자 인터뷰 사업으로 지출하고 남은 예산으로, 올해에는 일터 가이드북 활용 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육우당 추모: 작년 이후 육우당 추모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항목 삭제.
- 축제-퍼레이드: 결산에 맞추어 편성.
- 기념품 제작: 단체 굿즈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신규 굿즈 제작을 고려하여 확대 편성.
- 단체 안내서: ‘연간’ 보고서의 특성상 해당 연도가 지나면 재고 처리가 어려움. 따라서 24년부터 연간보고서는 PDF 로만 발행할 예정이기에 예산이 들지 않지만, '단체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임에 따라 연간보고서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단체보고서로 변경하여 편성함.

c. 회원사업

- 전반적으로 결산에 맞추어 편성함.

d. 연대사업

- 분담금은 결산에 맞추었고, 활동비와 후원은 단체 건축 재정에 따라 축소 편성.

e. 특별사업

- 세바퀴: 올해에는 아카데미 대신 세바퀴 사업을 진행. 세바퀴 사업은 카카오같이가치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편성 금액은 카카오같이가치 모금 미달치를 후원해주신 회원 분의 후원금 412,900 원과 비슷하게 맞춤)
- 행성인 캠프: 행성인 캠프는 기금 사업에 지원하여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원에 떨어질 경우 규모를 축소하여 100 만원 예산 선에서 무박캠프로 진행할 계획임.
- 기금사업: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액 편성. 세바퀴 시즌 3 사업 진행 제반비용.
- 재정사업: 24년에는 특별한 재정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CMS 확충에 집중할 계획임

기타 및 합계				
관	항	2032년 예산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기타	예비비	300,000	249,000	200,000
	기타	-	50,000	-
	기타 소계	300,000	299,000	200,000
환급	환급	200,000	855,100	-
지출 합계		204,597,920	218,644,283	155,915,740
적립금		4,800,000	-	-
이월금		13,093,260	20,930,399	10,881,759
합계		222,491,180	239,574,682	166,797,499

③ 기타 및 합계

- 적립금: 별도 적립 없음.
- 이월금: 월 고정지출비(인건비+관리비=10,465,100 원) 수준에 맞추어 편성.

※ 2024 행성인 활동 연간계획표

상반기

분류		1	2	3	4	5	6
내부 활동	세.바.퀴. 시즌 3			교육		캠페인	
	주요 활동		총회(3 일)	연간보고서 발행	단체안내서 제작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회원 의무교육	의무교육 (13 일)		디딤돌(2 일)			디딤돌(1 일) 의무교육(15 일)
	매월 정기 회원모임	(26 일)		* 매월 27 일은 행성인 정기 회원모임!			
주요 외부 활동	성소수자		성소수자 인권포럼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아이다호 데이 주간	자금심의 달
	시민사회/기념일/명절		설날	여성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노동절	난민의 날

하반기

분류		7	8	9	10	11	12
내부 활동	세.바.퀴. 시즌 3						
	주요 활동			행성인 캠프 (7 일)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회원 의무교육		디딤돌(31 일)				디딤돌(21 일)
	매월 정기 회원모임	* 매월 27 일은 행성인 정기 회원모임!					송년회(21 일)
주요 외부 활동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에이즈의 날
	시민사회/기념일/명절			추석		전국 노동자 대회	세계 인권선언일

※ 정기 회원모임: 27일이 주말인 달에는 전 주 목요일에 진행

※ 연중 활동: 팀/소모임 활동, 일상 활동 홍보, 홈페이지 개편 등

기타 안건

기타 안건. 정부 및 기업 후원 원칙 마련 토론의 건

1) 현재의 상황

“행성인은 활동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는 오랜 시간 동안 암묵적인 행성인의 활동 원칙으로 자리잡아 왔음. 이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시민사회 단체의 경우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비판 기능을 상실하거나, 활동의 의제와 영역,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우려에 기반해서 설정한 원칙이었음.

이 원칙은 행성인의 활동 원칙과 방향, 비전·가치·미션, 정관 및 내규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후원 수령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실질적인 원칙으로 기능하고 있음. 다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직접 후원을 받지 않았으나, 기업의 재원으로 조성된 민간 재단의 기금 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기업 후원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음.

최근 일부 기업에서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행성인으로도 관련한 문의나 제안이 종종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현재는 해당 후원의 제안이 행성인 활동의 독립성 유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 거절하고 있음(예를 들어, 2023년 소규모 비건 업체의 프라이드먼스 후원을 거절한 경우가 있음). 또한 한편으로는 2021년부터 단체의 핵심 사업으로 성소수자 노동권 관련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기업과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기도 했음(예를 들어, 단체 후원이라는 방식이 기업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활동의 진입점이 되는 상황에서 후원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기업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며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 및 사무국에서는 이 원칙에 대한 토론과 원칙의 구체화의 필요성을 확인함.

2) 논의의 필요성

정부와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행정인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의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활동 의제와 영역, 방식 등의 결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정부나 기업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사회 운동이 유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임.

하지만, 모든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이 시민사회 단체의 독립성 유지를 저해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사회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 역시도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한 활동이 되기도 하며, 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이 주요한 투쟁의 의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

행정인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최근 기업의 후원을 일괄 거절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어 왔음. 소규모 비건 업체의 후원을 받는 것이 행정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업이 매우 소수인 상황에서 후원이라는 방식의 기업의 DE&I 활동을 거절하는 것이 성소수자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단체의 활동과 노력에 오히려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활동을 위한 재정 확보와 독립성 저해의 가능성 사이에서의 판단에 있어서 그동안은 구체적인 평가 없이 후자만을 우선시해왔던 것은 아닌지 등 사무국에서 마주하는 개별 사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이러한 고민을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지 못함.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활동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받지 말아야 할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하고, 판단의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의 기회가 필요함을 확인 하였음. 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향후 정부 및 기업 후원 원칙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논의 및 구체적인 원칙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부록

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2023. 02.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이름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이하 ‘행성인’)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직, 간접적으로 벌어지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어하고 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원칙)

1.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3.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간의 연대는 물론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계급, 계층,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성소수자들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다양한 성소수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 노동권, HIV/AIDS 인권, 가족구성권, 군 인권 등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2. 성소수자 혐오표현 및 차별선동 대응
3. 국내 성소수자인권단체 및 국제연대,
4. 여성, 장애, 이주, 빈곤,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간 연대활동
5. 성소수자커뮤니티 내 인권교육 및 캠페인
6. 성소수자 인권상담 및 위기대응
7. 성소수자 커뮤니티 문화사업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 ①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유예 및 정지)

①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단,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정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제8조 (회원의 탈퇴, 징계, 제명)

① 회원은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사유와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탈퇴의 의사를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징계 및 제명의 사유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와 관련한 운영내규를 따른다.

1. 제3조에 규정된 행성인 활동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

2.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3.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행위

4. 기타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총회는 행성인의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후원회원은 참관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공지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해야 하며 홈페이지와 유, 무선 연락을 이용해 공지한다.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 ⑥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공지와 함께 총회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주요 의결 안건을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운영회의에 서면, 메일, 팩스, 구두로 불참의사를 밝히고 다른 정회원에게 권리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인준
2. 회기별 사업보고 및 결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 재, 개정
5. 사업계획의 승인
6. 주요 활동방향 결정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행성인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장 1인 이상 2인 이하
2.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이하
3. 자문위원회
4. 조정위원장 1인 이상
5. 조정위원 3인 이상
6. 사무국장 및 감사 각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 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조정위원장, 사무국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조정위원은 사건 접수에 따라 조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 협의로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활동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
4. 기타 임원으로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활동을 인준받아 중임할 수 있다. 단, 조정위원의 임기는 담당 사건의 종결 보고서 작성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회의와 각 기구의 활동을 총괄하며 본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회의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회의 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운영위원장과 협의로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 3인 이상을 선임한다.

1.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한 징계사유 및 분쟁의 발생을 신고 받은 경우

④ 조정위원회는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한 징계사유 및 분쟁의 발생과 관련하여 담당할 사건에 대하여 진상 조사, 조정, 징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행성인 회원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 등 재정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

⑥ 감사는 일반회계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장 운영회의

제18조 (운영회의의 구성)

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운영위원의 자격)

① 운영위원은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1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어갈 사람이어야 한다. 단, 책임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회의의 소집)

- ① 운영회의는 정기운영회의 및 임시운영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운영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운영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운영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의 1 (활동 기구의 구성)

- ① 본회의 활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성하고 해소한다.
- ③ 활동기구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각 활동기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을 둔다.

제6장 조정위원회

제23조 (조정위원회의 목적)

조정위원회는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진상조사, 조정, 징계할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제2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조정위원장은 1인 이상으로,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사건별로 조정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장과 조정위원장의 협의로 선임한다.
- ③ 조정위원장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 ④ 조정위원장이 분쟁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장을 선임한다.

- ⑤ 운영위원장이 분쟁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 ⑥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 (사무국의 역할)

-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본회의 회원조직, 재정 등 일상활동 및 운영회의 결정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③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활동가 중 1인으로 한다.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및 상임활동가 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운영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회의 결의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제8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 (수입)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8조 (출자 및 용자) 행성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관리)

본회의 재산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재산변동과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사무국장이 부재할 경우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리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및 보고)

-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 ②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단 귀속단체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34조 (운영규정) 이 정관규정 이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의 의결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내규 (2023. 02. 11)

1. 운영위원회

- 1) 역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점검하며 실행에 옮긴다.
-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팀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은 자유롭게 참관하고 회의안건을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권한은 제한한다.
- 3) 회의개최: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참관을 위해 최소 3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개최일을 공지한다. 운영위원장은 현안에 따라 정기회의를 더 소집할 수 있다.

2. 사무국

- 1) 역할: 행성인의 회원조직, 재정 등의 일상 활동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2) 구성: 사무국은 운영위원장, 상임활동가 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운영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

- 1) 자격: 운영위원장은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과 1년 이상 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업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역할:

- 행성인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회원들의 동정을 살피고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 재정 입출금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 팀활동, 회원모임, 연대활동, 현안대응 등을 총괄한다.
-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상임활동가(전임, 반상근)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3) 임기: 임기는 1년이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받는다.

4)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장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5) 활동비: 상근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4. 운영위원

1) 자격: 운영위원은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1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어 갈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 운영위원은 회원들을 대표하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운영위원회에 적극 제안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성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장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운영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운영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3)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기: 임기는 1년이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받는다.

5. 상임활동가 (전임, 반상근)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 사무실 기본업무 (사무실 정리, 상담, 방문자 접대, 상근일지, 상담일지 작성 등)
- 회원들의 동정파악하고 회비납부현황 체크한다.
- 행성인이 활동하는 각종 현안대응
- 기타

3) 개인정보보호: 상임활동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면절차: 운영위원장이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 및 해임안을 승인받는다.

5) 상임활동가는 정기총회 인준 후 상근계약서를 체결하고 상임활동가 처우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6. 사무국장

1) 자격: 상임활동가 중 1인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투명하고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속히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회원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를

관리하며 적절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기: 임기는 1년이고 운영위원장이 선임하며 정기총회 시 활동을 인준받는다.

7. 활동기구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성: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구성된다.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마다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각 활동기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해 각 활동팀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을 둔다.

3) 활동비 지원: 활동기구는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해소: 활동기구의 해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8. 회원소모임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성: 회원소모임은 년2회 등록기간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소모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장을 포함한 행성인 정관 제7조 중 회원의 의무를 이행 중인 3인이상의 정회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소모임은 년1회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3) 활동비 지원: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준받은 소모임은 총회에 따른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해소: 등록 후, 정기총회에 활동보고를 하지 않은 소모임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

9. 기타

1) 외부강연비 및 글 청탁 원고료 분배

- 운영위원장과 상임활동가는 행성인 활동으로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연비를 수령 받은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단체에 후원한다.

행성인 운영내규는 정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조정위원회 운영내규 (2023. 02. 11)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본 내규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의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 조정, 징계 절차에 적용된다.

② 본 내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조정절차에 적용된다.

③ 성폭력 사건의 경우 행성인 성폭력사건처리규약이 본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3조 (조정위원회의 역할) 조정위원회는 행성인 활동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기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 사안을 조정한다.

제 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행성인은 조정위원장 1인 이상을 둔다.

② 조정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결정으로 인준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④ 조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한 징계 사유 및 분쟁의 발생과 관련한 사건별로 이를 담당하는 조정위원 3인 이상을 선임한다.

제 5조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조정위원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개별 조정위원의 담당 사건의 숫자가 3건을 초과한 경우
3. 기타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 6조 (조정위원의 회피) 조정위원은 제5조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 7조 (특별조정위원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개별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별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 조정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 보고서 작성까지로 한다.

1. 제5조의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발생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경우
2.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특성 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조정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조정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인은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선임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기존 조정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제 8조 (청구) ① 정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의 징계사유 및 단체 내 분쟁 발생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조정위원회에 징계의 결정 또는 분쟁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다룰 수 있다.

제 9조 (청구의 각하)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회원이 아닌 경우. 단,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하지 않는다.
2. 정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청구를 각하한 경우 즉시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임시조치) 조정위원회는 징계의 결정 또는 분쟁의 조정을 청구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위의 각 호의 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온/오프라인 공동활동공간으로부터의 격리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간분리조치

3. 피청구인이 단체 내에서 맡고 있었던 역할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4. 그 밖에 피해자, 청구인,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1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행정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 신고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 조정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경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원활한 사건 해결과 일정 준수를 위하여 조정위원회, 가해자, 피해자는 사건 처리 이행의 과정에 신의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위원회는 절차의 중지, 절차의 종결, 징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2조 (조사의 방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2. 징계에 회부된 사안에 관하여 형사재판 결과 형이 확정된 경우
3. 연대단체 등 외부의 관련 기구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 경우

제 13조 (절차의 중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된 사건의 절차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징계가 청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연대단체 등 외부의 관련 기구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 1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조정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 15조 (청구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분쟁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1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7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1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18조 (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9조 (징계의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명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간의 완료 후 회원 제명의 건을 총회의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제명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제명
2. 2년 이하의 직위해제 또는 활동중지
3.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비폭력, 인권교육 등)
4. 사과문 작성
5. 경고

② 조정위원회는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수위의 결정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3. 누구라도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제 20조 (제명의 의결) ① 제명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 및 진행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정관의 총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1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인과 관계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임원 또는 회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시행
2.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3.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4. 특별감사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의절차) ①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통지 받은 후 5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조사 절차는 제11조와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3조 (보고서의 작성)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조정위원회는 내부용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4조 (제명 된 회원의 재가입절차) ① 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명 된 회원은 제명 결정 이후 5년동안 행정인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명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재가입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명 된 회원의 재가입 심사는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꾸려 진행한다.

③ 재가입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재가입 이유와 징계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변화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청구된 재가입 심사와 관련 하여 심사기구는 사건 당시 피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기구의 결정으로 재가입한 회원은 2년 동안 임원 및 팀장, 소모임장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

제 25조 (사건의 공개 범위 등) ①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건의 결정사항은 회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청구인은 조정위원회에 사건의 공개 범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제 26조 (2차 피해의 방지) ① 2차피해라 함은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이외의 자가 언어폭력, 정

신적 협박, 물리적 강압, 집단적 따돌림, 업무상 괴롭힘, 청구인 신변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행동 및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인의 피해상황을 말한다.

② 조정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영위는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7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8조 (청구인의 보호) 청구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9조 (비밀 유지) ①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청구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30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본 규약은 2019년 3월 5일부터 적용된다.

제 2조 본 규약은 2019년 3월 5일 이전까지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 회원의 징계 사안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행성인 정관 및 인권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성폭력사건처리규약 (2023. 02. 11)

제 1조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본 규약이 다루는 성폭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대방과의 적극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여야 함.

나. 언어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없는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다.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라.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 표현이 아님

마.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바.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 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사.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아.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성립하지 않음

2.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3.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4.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제 2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본 규약은 행성인의 활동 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적용된다. 단, 신고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사건 발생 당시 비회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회원가입을 할 시 본 규약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② 행성인 활동의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행성인의 임원, 팀장, 소모임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본 규약을 적용한다.

제 3조 (성폭력사건처리 기구의 구성) 본 규약의 정의에 따른 성폭력 사건은 행성인 조정위원회가 본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처리한다.

제 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5조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2.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3.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 6조 (조정위원의 회피) 조정위원은 제5조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 7조 (성폭력 사건처리기구의 역할)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 징계 결정 및 단체에 대한 권고
3. 피해자 보호
4. 이행사항의 점검
5. 당사자에게 공지
6.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 결정

제 8조 (의무와 태도)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건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

의 조사와 결정 권한을 피해자에게 이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피해자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공론화’나 ‘공식적 해결’만을 올바른 해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4. 충분한 조사 없이 가해자의 탈퇴, 제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 9조 (신고) ①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제1항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제 10조 (신고의 각하)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즉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시조치)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고를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해자,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위의 각 호의 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온/오프라인 공동활동공간으로부터의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2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 신고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 조정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경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원활한 사건 해결과 일정 준수를 위하여 조정위원회, 가해자, 피해자는 사건 처리 이행의 과정에 신의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위원회는 절차의 중지, 절차의 종결, 징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3조 (조사의 방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및 서한 답신 요청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 1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조정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 15조 (신고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제 8조 제 2항에 의거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17조 (분쟁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 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는 정지된다.

④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8조 (신고의 철회) 피해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9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징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가해자가 운영위원일 경우 조정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정관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임시조치와 구제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5. 누구라도 조정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제 21조 (이의절차) ①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통지 받은 후 5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조사 절차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2조 (보고서의 작성)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조정위원회는 내부용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3조 (사건의 공개 범위 등) ①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건의 결정사항은 회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피해자는 조정위원회에 사건의 공개 범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제 24조 (2차 피해의 방지) ① 2차피해라 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폭력, 정신적 협박, 물리적 강압, 집단적 따돌림, 업무상 괴롭힘, 피해자 신변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 행동 및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말한다.

② 조정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영위는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5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 26조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7조 (비밀 유지) ①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28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든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29조 (후속조치) 운영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교육시행
2.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시행
3.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4.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부칙

제 1 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경우 행정인 정관과 내부규약, 기타 인권단체의 관례를 참고할 수 있다.

제 2 조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참조목록

1. 고려대학교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
2. 청소년유니온 평등·존중·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문화 해설집
3.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폭력 사건처리 규정
4. 매듭 반성폭력 규약
5.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6.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7. 공생의 조건 자료집

정기 회원총회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편집 및 디자인 |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12길 20-5, 1층

이메일 | lgbtaction@gmail.com

전화 | 02-715-9984